



사진은 2019계룡군문화축제 모습.

軍문화엑스포 한 달 앞...K-밀리터리 세계로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0월 7~23일까지 계룡서 개최

군문화 콘텐츠 최대규모 행사

평화와 화합의 메시지 전달

군악·의장대 공연, 거리퍼레이드

무기 체험 등 軍 역할·가치 조명

관람객 131만 명 목표...준비 철저

세계 유일 종합군문화축제인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오는 10월 화려한 막을 올린다. 3군 본부가 위치한 '국방 도시' 계룡에서 첫선을 보인다.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군문화엑스포)는 '케이-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열린다.

충남도와 계룡시가 공동 주최하고,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가 주관하는 군문화엑스포는 전 세계 전쟁 역사와 군의 의식주, 무기, 첨단기술 등 군 전 분야를 살펴볼 수 있는 국제행사다.

군문화엑스포는 당초 2020년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2년 연기돼 올 가을 열린다.

관람 목표는 내국인 124만 명, 외국인 7만 명 등 131만 명이다.

주요 행사로는 세계 군악·의장대 콘서트,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로드 퍼레이드, 군무기장비 전시·탑승체험, 병영훈련 체험, 밀리터리 경연대회, 전시관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세계 군악·의장대 콘서트 및 로드 퍼레이드에 대한 관심이 높다. 미국, 영국 등 각국 군악대 및 대한민국 의장대의 공연을 한 곳에서 직접 보고 즐길 수 있다.

장비 기동 시범, 군 무기·장비 전시·탑승, 병영 훈련, 과학화 장비 사격, 암벽타기, 밀리터리 어드벤처, 군번줄 만들기, 군장비 모형 접기, 밀리터리 페이스 페인팅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빼놓을 수 없는 재미다.

전시관은 ▲세계평화관 ▲한반도 희망관 ▲대한민국 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등 7개 전시관을 운영한다.

세계평화관은 세계 전쟁의 역사와 평화를 위한 노력을 살펴볼 수 있는 콘텐츠로 꾸며지며, 한반도 희망관은 대한민국 전쟁과 평화의 역사를 소개한다. 대한민국 국방관에서는 육·해·공군 및 해병대 존 등이 마련돼 평화 실현을 위해 힘쓰는 우리나라 국방의 현주소를 소개한다. 세계군문화생활관에서는 대한민국 국군과 세계군의 의식주 군문화를 엿볼 수 있다. 국방체험관

에서는 드론봇 전투체계 등 체험할 수 있고, 4차산업융합관에서는 국방 관련 첨단 기술 및 제품을 접할 수 있다. 지역산업관에서는 도내 관광과 특산물, 지역 기업 우수 제품 등을 만나볼 수 있다.

아울러 대한민국 평화를 위해 희생한 6·25 참전국과 지원국을 초청한다.

이외 계룡대 영내 투어, 계룡산 안보 등반, 계룡 스탬프 투어 등 부대행사와 계룡세계평화포럼 등 학술 및 국제회의가 진행된다.

최근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해 도민들이 본격 활동에 나섰다. 도는 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와 9월 5일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범도민지원협의회는 시민사회단체와 출향인사, 자원봉사자 등 각계 700여 명으로 구성됐으며, 관람객 유치 홍보,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주변 관광명소 홍보, 지역 특산물 판매 지원, 의료 활동 지원, 숙박·음식업소 청결 지원, 교통안내소 운영, 행사장 거리 질서 유지 등의 활동을 펴게 된다.

입장권 예매와 무료관람 대상 등은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조직위원회 홈페이지(www.exp022.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련 2, 3, 16면)

/김정원 jwkim87@korea.kr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23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 힘 모은다

제31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개최

충청권 공통사업으로 대응 추진

충남도가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해 대전·세종시, 충북도와 손을 맞잡았다.

충청권 4개 시도는 8월 29일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제31회 충청권 행정협의회를 열고,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및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추진단 구성 ▲행복도시권 통합환승요금체계 시스템 구성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도가 내놓은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및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2026~2035)을 조기 시행하고, 이 계획에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보령선), 충청내륙철도 등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건설을 반영해 줄 것을 공동 건의하는 내용이다.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산~천안~청주공항~울진 등을 잇는 330km 규모 노선으로, 총 투입 사업비는 3조 7000억 원이다.

충청산업문화철도는 보령에서 공주와 세종, 조치원까지 78.5km를 단선전철로 잇는 사업으로, 2조 642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이번 의결 내용을 중앙정부에 전달하는 한편, 공동 협력과제로 중점 관리해 나아갈 계획이다. (관련 5면)

/정책기획관 041-635-3115

충남 빛낸 문화예술·체육인 찾아오

9월 말까지 문화상 후보자 접수

충남도는 9월 28일까지 '제60회 충청남도 문화상' 후보자를 공개 추천받는다.

추천 대상은 ▲시, 소설, 희곡, 수필, 평론, 회화, 음악, 서예, 조각, 건축, 사진, 공예 및 무용 등 우수(훌륭)한 작품 활동을 통해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사람 ▲이론적 연구 성과를 높이거나 훌륭한 경기 활동 또는 경기 지도로 지역사회 및 국위 선양 등 체육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이다.

추천권자는 ▲도의 실·국·본부장·의회 사무처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시장·군수 ▲수상 분야 관련 도 단위 기관·단체장, 도내 대학 총·학장 ▲일반 도민(20인 이상의 연명으로 추천)이다.

공개 추천 제출 서류는 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우편 또는 방문으로 가능하다.

충청남도 문화상은 문화예술·체육 분야에서 향토 문화 선양 및 지역사회 발전 유공자를 발굴해 수여하는 상이다.

/문화정책과 041-635-3812

알림

다음 신문(951호)은 9월 25일자로 발행됩니다.

도민 여러분 풍성하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도정신문팀

모바일 충남도정신문 운영

충남도정신문은 '카카오 뷰' 플랫폼을 활용한 모바일 신문을 운영합니다. 카오톡 검색창에 '충남도정신문'을 입력하고 채널 추가하면 다양한 정보와 이벤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비 8조 6553억 확보...9조 시대 위한 국회 대응 총력전

2023년 정부예산안 살펴보기

올 확보액보다 2814억 증가

산단 대개조 110억 등 반영

충남도가 내년 정부예산 8조 6553억 원을 우선 확보했다.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충남의 주요 현안이 정부 예산안에 대거 반영된 가운데 증액 반영을 위해 국회 심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확보액은 2022년 정부예산안 8조 3127억 원보다 3426억 원(4.1%) 많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된 8조 3739억 원에 비해서는 2814억 원(3.4%) 많은 규모다.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를 위해 미래 전략(핵심)산업을 육성하고, 교통·물류 인프라를 구축한다.

주요 신규 반영 사업 및 확보 예산은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 110억 원 ▲탄소포집기술 실증센터 구축 10억 원 ▲충청권 이차전지 기술 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26억 원 등이 있다.

충남 산단 대개조는 지역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산단이 노후화로 가동률 저하와 기업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일으키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천안 제3산단을 거점으로 아산 테크노밸리,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인주산단 등을 연계해 탄소중립 기반 융합형 미래차 소부장 글로벌 허브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탄소포집 실증센터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도와 세계 탄소 규제 강화 대응을 위해 탄소 다배출 지역인 서산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구축한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장항선 개량 1121억 원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 1440억 원 ▲인주~연치 고속도로 건설 1016억 원 등을 반영시키며, 교통·물류 인프라 확충 디딤돌을 놔다.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을 위한 주요 신규 사업으로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5억 원 ▲축분 고체 연료화 생산시설 구축 57억 원 등을 반영했다.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는 국내 최장 해저터널 등 서해안 교통 인프라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 110억 원
- ▲탄소포집기술 실증센터 구축 10억 원
-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1121억 원
-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 1440억 원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5억 원
- ▲축분 고체 연료화 생산시설 구축 57억 원
-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59억 원
-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43억 원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 7억 5000만 원
- ▲고성능 화학차 보강 5억 3000만 원
- ▲서산의료원 병상 구축 10억 원
-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 31억 원

2023 정부예산안 8조 6553억 원 확보 분야별 주요사업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9억 원
- ▲천안 K컬처 박물관 2억 원
- ▲충청유교문화권 광역관광개발 133억 원

확대에 따른 관광객 증가, 해양 레저 스포츠 수요 증가에 맞춰 원산도에 실내 레포츠 체험장을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59억 원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단지 조성 43억 원 등을 반영시켰다.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분야에서는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 7억 5000만 원 ▲고성능 화학차 보강 5억 3000만 원 등을 신규로 포함시켰다.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은 심뇌혈관질환 전문 치료와 인력 육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심뇌혈관질환 응급 및 전문 치료 시스템·거점 기관 부재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계속 사업으로는 ▲서산의료원 병상 구축 10억 원 ▲TBN 충남교통방송국 건립 31억 원 등을 담았다.

‘가치 있고 품격 있는 삶’ 분야에서는 문화예술 기반 조성, 역사문화관광 진흥, 다양한 체육활동 지원 등 도민 건강과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위한 국

비 확보에 집중했다. 신규사업으로 해미 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9억 원, 천안 K컬처 박물관 2억 원 등을, 계속사업으로 충청유교권 광역관광개발 133억 원 등을 각각 확보했다.

도는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 이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들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할 방침이다.

(관련 8면)

/예산담당관 041-635-3174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4차산업 선도

도 민선8기 15개 시군 방문

도민에게 도정비전·방향 알리

충남도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글로벌 메가시티로 조성한다.

도는 민선8기 첫 시군 방문행사를 통해 도민에게 도정 비전과 운영방향을 알리고, 시군과의 상생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 중이다.

첫 방문지인 금산에서는 인삼 산업의 힘찬 도약 등 맞춤형 발전전략을 제시했고, 논산·계룡은 국방 핵심도시로, 천안은 디지털수도로 육성을 각각 밝혔다.

특히 아산에서 베이밸리 메가시티 건설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충남북부, 경기남부를 아우르는 아산만 일대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수소경제 등 대한민국의 4차산업을 선도하는 글로벌 메가시티로 육성한다. 아산은 전국 기초 지자체 중 수출·무역수지 1위로 대표 수출도시이다.

서산은 충남서산공항공과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고, 부여와 청양, 공주는 백제문화권 관광거점을 조성해 명품 관광도시로 만든다.

당진은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할 것을 밝혔다. 당진항을 신성장 동력산업 기반 복합다기능 항만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항만 물동량 처리를 위한 부두를 확충하고, 항만전수시설을 조성한다.

서천에서는 브라운필드 생태복원사업의 국가모델화를 제시했고, 보령에선 국제해양레저관광벨트 구축을 내놔다.

도는 6일과 7일 방문하는 예산과 홍성에서 충남혁신도시 관련 청사진을 제시한다.

도 관계자는 “민선8기 출범에 따른 첫 시군 방문은 도정 비전과 운영방향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에 초점을 두고, 도민 의견 수렴에 집중한다”고 말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기원합니다!!”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

도내 기관·단체장 등 ‘동참’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가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는 9월 5일 계룡 문화예술의전당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지원을 위한 기구인 범도민지원협의회는 도내 기관·단체장, 시민사회단체, 출향인사, 자원봉사자 등 700여 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11개 분과위원회로 나눠 관람객 유치와 홍보 활동을 위한 홍보 활동과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분위기를 확산 및 역량 결집을 돕는다.

주요 활동은 ▲관람객 유치 홍보 ▲자원봉사자 운영 지원 ▲주변 관광명소 홍보 ▲지역 특산물 판매 지원 ▲의료 활동 지원 ▲숙박·음식업소 청결 지원 ▲행사장 쓰레기 처리 지원 및 이동식 화장실 설치·운영 ▲교통안내소 운영 ▲행사장 거리 질서 유지 등이다.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범도민지원협의회가 5일 충남 계룡문화예술의전당에서 출범식을 갖고 성공개최를 다짐하고 있다.

출범식에서 범도민지원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홍보 및 관람객 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로 다짐했다.

또 각자가 소속한 기관·기업 등의 임직원들이 군문화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방문객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엑스포를 관람할 수 있도록 앞장설 것도 약속했다.

협의회는 그동안 2009년 안면도꽃박람회, 2010년 세계대백제전, 2011년과 2017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2022년 보

령해양머드박람회 등 충남의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왔다.

임동규 협의회장은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의회회원 모두가 힘을 합칠 것”이라며 “코로나로 인하여 긴 기다림 끝에 개최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행사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공동체정책과 041-635-3476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23

김구, 윤봉길 결심에 감복하다

대한의 청년, 윤봉길

윤봉길의사 상하이 의거 90주년

10) 상해의거를 자원하다

일제는 1932년 1월 28일 상해사변을 일으켰다. 윤봉길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상해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을 목격하였다. 상해에서 벌어지는 중국군과 일본군의 대포와 기관총 소리는 중국과 일본의 힘이 서로 마주치는 소리로 들렸다.

이때 중국 상해공병창 군기처 주임으로 있던 김홍일이 김구와 협의하여 일본군 비행장 격납고와 무기창고 폭파 계획을 세웠는데, 윤봉길이 여기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이곳에는 일제 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었다. 윤봉길은 이 일을 하기 위하여 일본인으로 위장하고 탄약 창고의 일자리를 얻는데 성공하였다. 노동자들이 창고에 들어갈 때 철저히 몸수색을 했다. 그런데 도시락과 물통만은 조사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안해낸 것이 도시락과 물통형 폭탄이었다. 김홍일은 중국인 왕백수에게 도시락과 수통에 넣을 폭탄을 고안하도록 했는데 시계장치가 미비하였다. 그로부터 얼마 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다. 다음 아산 4월 29일의 천장절 행사 소식이었다. 도시락과 수통형 폭탄 계획은 이렇게 유묘적절하게 살릴 수 있게 되었다.

윤봉길은 4월 20일 김구를 찾아갔다. 이날 윤봉길은 김구에게 “제가 채소 바구니를 등 뒤에 메고 날마다 흥구 시장을 다니는 것은

큰 뜻을 품고 천신만고 끝에 상해에 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입니다”라면서 이봉창의사의 동경의거와 같은 죽을 자리를 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구는 윤봉길의 결심을 듣고 감복하였다. 그가 윤봉길을 종품공장에서 보았는데, 진실한 청년노동자였다. 그리고 학식은 있으나 생활을 위해 노동을 하거나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해보니 몸을 바쳐 큰 뜻을 이룰 의로운 대장부였던 것이다. 김구는 윤봉길과 함께 4월 29일 있을 일본군의 천장절 행사에 특공작전을 감행하기로 하였다. 왜냐하면 이 자리에는 상해 주둔 일본군사령부의 총사령관 이하 군정수뇌부들이 모두 참석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 특공 작전이 성공만 한다면 중국군이 막대한 희생을 치르기도 해내지 못한 일본군 총사령부 전체를 폭파시켜 버리는 전과를 낼 수 있었다.

윤봉길은 이 작전에 자원하였다. 김구는 무거운 마음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거사를 책임질 것을 위임하고 중국 돈 200원을 주면서 거사 준비를 하도록 했다. 윤봉길은 김구의 말을 듣고 “저는 이제부터 가슴에 한 점 번민이 없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준비해주시시오”라고 했다.



김상기 충남대 국사학과 명예교수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 개최 '박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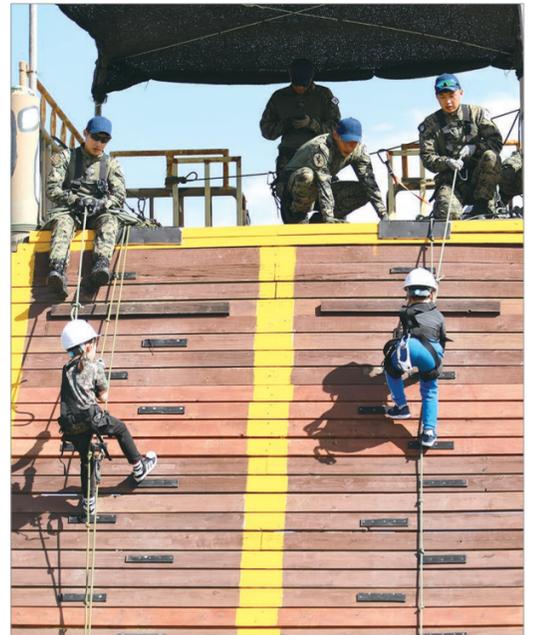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10월 7~23일 계룡대 활주로
도민 넘어 전 세계인 국제행사
평화, 자유, 안보 소중함 되새겨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오는 10월 7일부터 23일까지 17일간 계룡시 계룡대 활주로 일원에서 개최한다. 세계 유일의 군(軍) 문화를 주제로 한 국제행사로, 의식주와 무기, 첨단기술 등 군대 관련 전 분야를 다룬다. 무엇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평화와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진 가운데 세계 군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평화의 장으로 펼쳐진다. 군문화엑스포는 코로나19로 2년 연기된 만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군장비 기동시범



병영훈련체험

협력 여행사 위촉해 관광객 유치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홍보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이끌어 갈 협력 여행사 18곳이 선정됐다.

충남도는 최근 서울관광플라자에서 수도권 소재 여행사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협력 여행사 위촉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위촉한 협력 여행사는 지난 3년간(2019~2021) 도 관광 유치 실적 이 우수한 여행사 중 선정됐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팸투어와 엑스포 관광상품을 중점 개발하고 이를 홍보해 단체관광객 유치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를 통해 전 세계에 평화의 하모니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협력 여행사들이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관광진흥과 041-635-3884

시군 이통장들, 홍보 나선다

15개 시군 이통장들이 계룡세계군문화

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다짐했다.

박종환 이통장연합회 도지부장은 8월 26일 호서대 아산캠퍼스에서 열린 '이통장 공동 연수'에서 '우리는 사명감을 갖고 직분에 충실한다'는 이통장 헌장을 언급하며 "보다 책임감 있는 직책 수행 및 10월 15일 전국 이통장 연합회 한마음대회에서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06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2022 보령해안마드박람회 성공 배경에는 이통장을 비롯한 도민들의 저력이 있었다.

도는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성공을 위해 홍보대사 역할 및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길 당부했다.

/자치행정과 041-635-3594

지원 인력 추가 전담팀 가동

도는 '2022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개막을 앞두고 추가 전담(TF)팀을 구성·가동해 행정 지원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최근 관련 업무 팀과 별도로 부서

자체 인원 5명으로 구성된 전담팀을 만들어 행정 지원 인력을 관리·운영한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타 국제행사 와 비교해 대규모 행사장(10만 평)을 사용해 원활한 행사 진행을 위해선 지원 인력이 필요하다.

전담팀은 군부대, 지자체, 자원봉사자, 관계기관 등에서 참여하는 지원 인력을 관리·운영하고 개·폐막식 진행을 도울 예정이다.

주요 업무는 ▲행정 지원 인력 운영 계획 수립, 지원 근무 참석자 파악 및 명단 작성 ▲근무자 교육, 현장 배치·운영(차량 및 중식 제공) ▲개·폐막식 관련 초청자 참석 여부 파악 ▲기타

현안 업무 지원 등이다.

아울러 전담팀은 행사 기간 중 국내외 단체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포상금도 지원할 방침이다.

/관광진흥과 041-635-3881

계룡세계평화포럼, 평화의 비전 제시

최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이 지속되며 평화에 대한 염원이 커지면서 세계 최초 평화를 주제로 열리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10월 13일 계룡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세계평화를 위한 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계룡세계평화포럼이 열

린다.

포럼에는 국내외 국방·군사·외교 관련 전문가, 교수, 학생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속가능한 세계·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軍의 국제협력 방안 ▲한반도 평화를 위한 軍의 새로운 평화 체제 준비 ▲세계평화가 대한민국의 가져올 기대효과 등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무엇보다 미래 대한민국의 군을 책임질 사관생도, ROTC, 군사학과 학생 등이 대거 참여해 그 의미가 배가 될 전망이다.

유병훈 사무총장은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세계평화와 안보를 위해 군(軍)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도 중요하다"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의 국방수도 충남 계룡시에서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2계룡세계평화포럼 현장방청은 9월 13일까지 軍문화엑스포 홈페이지(<http://expo22.kr>)에서 누구나 사전등록 할 수 있다.

/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042-840-3923

/정리 김정원 jwkim87@korea.kr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군장비 탑승체험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 개막식에 부쳐

특별기고

마침내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10월 7일부터 23일(17일간)까지 충남 계룡시 활주로 일원에서 개최된다. 세계 군문화의 다양한 가치를 공유하는 국제행사인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케이-밀리터리(K-Military), 평화의 하모니'를 주제로 대단원의 막이 오른다.

그동안 COVID19는 전 세계 모든 문화행사의 문을 걸어 잠근 거대한 빗장이었다. 필자가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조직위 위원으로 위촉된 지 벌써 3년 차이다. 년도에서 보면 알다시피, 올해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가 개최되니 그동안 사·도 담당공무원이나 관련 업체들의 애간장이 얼마나 녹았을까 가히 상상되는 바이다.

본 행사의 목적은 세계 유일의 분

단국인 대한민국에서 "군문화"의 궁극적 가치를 "평화와 화합"으로 실현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와 국방수도 계룡시의 위상을 구축하는 것이다.

즉 K-방산을 포함한 대한민국 군문화의 우수성과 대중성을 전 세계에 확산 및 공유하고 군을 전쟁의 상징에서 군문화를 통한 국민공감 예술로 승화시키며, 그리고 세계평화를 지키는 중심에 군이 있음을 부각하는 것이다.

이에 조직위는 군문화의 가치를 전달하는 특화된 콘텐츠를 발굴하고 관람객의 흥미유발 및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관람객에게 다양한 군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세계평화관, 한반도 희망관, 대한민국 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국방체험관 등 7개 전시관을 조성하고 장비 탑승,

서바이벌, 사격훈련 등 이색 체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엑스포의 핵심 프로그램인 해외군악대 시연으로 미국, 영국, 멕시코 등 9개국의 군악대가 시범을 보일 예정이다. 2007년부터 개최한 군문화 축제가 일반인이 경험하기 힘든 군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체험하고 알리는 역할 수행했다면,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문화, 산업, 국방이 만나 대한민국과 세계의 군, 관람객, 지역민까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진화된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2022엑스포는 계룡시가 군문화중심지로서 세계평화와 화합의 장을 실현하고 세계군문화 교류를 통한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와 계룡시의 위상을 증대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세계평화는 어느 특정국가나 단체에 의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 피스메이커(peacemaker)가 되어야 이를

수 있다. 6.25전쟁과 분단의 상처 입은 한반도에서 희망을 꿈꾸고 미래로 향하는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군의 강한 힘과 미래가 있어야 한다. K2전차, K9자주포 등 K-방산으로 40조 '짜깁'을 올린 레거 속에서 개최되는 '2022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는 대한민국 국군과 세계 군의 의식주와 군문화, 세계 군의 역사속에서 형성된 군문화의 과거와 현재를 한 눈에 펼쳐 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다. 6.25전쟁 참전·지원국에 대한 보은의 의미와 함께, 논산·계룡시를 대한민국 군 문화 메카이자 국방 중추도시로 그 임지를 굳건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행사의 의의가 있다.

논산·계룡 내 국방 인프라를 활용해 국방산업의 거점이 될 국방산업 클러스터를 육성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다짐과 민선8기 충남도정이 출범하면서 공약사항으로 제시했던 육

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 추진을 연계하여 이 지역의 국방수도 완성을 기대한다. 때마침 국토교통부가 8월 31일자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 확정 이 반가운 이유이기도 하다. 현 정부의 지역공약인 육군사관학교의 논산 이전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

아울러 충남도는 COVID19 추이 예측이 쉽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안전하고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를 위한 상황별 대안 마련에 철저한 준비를 해야 할 것이며, 조직위, 지원단, 계룡시 등 관계 기관과 추진상황을 지속 공유하고 유기적인 방역 대응 체계를 유지해야 할 것이다.



라미경
서원대학교
휴머니티교양대학 교수



논산-대전 철길 펴고, 연무대 고속철도 연결

호남선 고속화 사업 에타 통과
2027년까지 국비 7192억 투입
직선화로 시간 단축, 접근성 향상

호남선 고속화 사업

▲위치 : 대전 가수원역 ~ 충남 논산역 일원

▲사업규모 : 연장 29.2km, 신연무대역(논산훈련소) KTX 연장 운행

▲총사업비 : 7192억 원(전액 국비)

▲사업기간 : 2022년 ~ 2027년

충남 논산에서 대전 가수원을 잇는 구불구불한 철도를 펴고, 육군 논산훈련소까지 고속철도(KTX)를 연결한다. 지역 간 이동 거리·시간 단축과 교통 안전성 강화, 입영 장병·가족 논산 훈련소 접근성 향상은 물론, 도의 국방산업단지 조성 및 육군사관학교·국방부 유치에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8월 24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에서 호남선(가수원~논산) 고속화 사업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호남선 고속화 사업은 2027년까지 7192억 원의 국비를 투입해 기존 선로 45km를 개량해 29.2km로 줄인다. 논산훈련소 인근 신연무대역 고속철도(KTX) 운행도 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도는 호남선 고속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논산역에서 서대전역까지 KTX 이동 시간이 33분에서 20분으로 13분

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입영 장병이 서울 용산역에서 논산역을 거쳐 논산훈련소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217분에서 166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급곡선 구간은 31개소에서 5개소로 줄고, 13개소의 철도 건물목은 직선화 개량 및 입체화를 통해 모두 없앤다. 도는 특히 호남선 고속화가 교통 인프라 확충 및 정주여건 개선 효과를 불러오며 국방산업 단지 조성 및 육군·국방부 유치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 충청과 호남의 인적·물적 교류 확대를 통한 지역 상생 및 균형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도 호남선 고속화가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도로철도항공과 041-635-2835



충남도서관 전경

충남도서관, 식당·카페 정상 운영

운영 시간 확인 후 이용 오후 1시까지, 저녁식사는 화요일~금요일 오후 5시부터 오후 6시 30분까지 이용 가능하다. 북카페와 편의점은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해 도서관 개관 시간에 맞춰 운영한다. 식당 운영 시간은 점심식사의 경우 화요일~일요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충남도서관 041-635-8022

도정만화 신 명 화



추석관련 단신기사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보내세요” 추석연휴 코로나 특별방역 시행

충남도는 12일까지 추석연휴 코로나 19 확산 방지 특별방역대책을 추진한다. 현재 도·시군 감염병 대응 비상방역근무조 17개반 51명이 24시간 비상방역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집단감염 등 특이상황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위해 보건소-도-질병관리청 간 핫라인을 구축했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은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비접촉 대면 면회 및 비대면 면회만 허용한다. 시설 내 감염병 발생 시 신속대응을 위한 조치로는 요양시설 기동전담반을 상시 운영토록 했다. 연휴 기간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는 26곳을 운영한다. 운영여부 및 운영시간 등은 응급의료정보시스템 누리집과 시군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윈스톱진료기관 및 코로나19 담당

약국도 각각 239개, 201개소 이상 운영하며, 소아·분만·외래투석 의료기관도 지정 운영한다. /감염병관리과 041-635-4383

따숨물에서 추석 선물 구입하세요 사회적경제기업제품 최대 30% 할인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12일까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최대 30%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획전을 진행한다. 충남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가 진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 추석 특별 프로모션은 ‘따숨물’과 연결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참여할 수 있다. 누리집(http://www.ddasummall.co.kr)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인터넷 포털에서 따숨물을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제품은 7000원대 감태 세트부터 20만 원대 홍삼 가공 세트까지 다양하게 구성했으며, 품질 좋은 과일과 한과 상품도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

볼 수 있다. 도는 특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할인 비용과 판매에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과 041-635-3974

명절 선물 과대포장 집중 점검 포장횟수, 포장공간비율 등

충남도는 추석 명절을 맞아 오는 16일까지 포장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명절 선물 꾸러미 등 과대포장 집중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은 명절 판매량이 많은 제과류와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등 도내 유통매장의 종합 선물 꾸러미를 대상으로 포장 횟수와 포장 공간 비율 등 기준 준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점검 시 발견한 가벼운 위법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 사항에 대해서는 검사를 의뢰해 결과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다. /환경안전관리과 041-635-2725

개별공시지가 24일까지 의견접수

토지이동 정리분 4만여 필지 대상 인근 토지와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한 뒤 조정이 필요하면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의견서는 토지소재지 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일사관리 부동산통합민원 누리집(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시지가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국세 및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기준과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토지관리과 041-635-4796

충청남도 도정신문

빠르고 쉽게 모바일로 보는 방법!

- 최신 도정·의정소식과 문화·생활정보를 쉽고 빠르게!
- 사람냄새 가득한 정겨운 충남이야기들
- 다양하고 풍성한 이벤트까지!

지금 바로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세요!

카카오톡 실행하기

카카오톡 검색창에 '충청남도정신문' 입력

QR코드 스캔

충청남도정신문 신문 무료 구독신청 및 취소는 충청남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전화문의 ☎ 041-635-2035



한국유교문화진흥원 10월 개원...충청국학 진흥 새 지평 연다

제1회 충청국학 학술대회 개최 충청국학연구 확대, 위상 확립

한국 유교문화 세계화를 이끌어 갈 한국유교문화진흥원 개원을 앞두고 충청유교문화 진흥을 위한 논의의 장이 펼쳐졌다.

충남도과 문화체육관광부는 8월 25일 한국유교문화진흥원 1층 대학당에서 '제1회 충청국학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충청국학 연구의 현황과 새 지평'을 주제로 기조 발표, 주제 발표, 종합 토론 및 질의응답 등이 진행됐다.

학술대회는 이해준 공주대 명예교수의 '충청국학의 위상과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역할'을 주제로 한 기조 발

표를 시작으로 1부 충청국학연구의 현황과 과제, 2부 충청국학연구의 확장과 활용 등으로 진행됐다.

1부에서는 이항배 충남대 교수가 '충청지역 한문학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를, 오항녕 전주대 교수가 '충청역사의 가능성-지역사의 시민권과 위상을 위하여'를, 이영자 충남대 강사가 '충청유학 연구 현황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며 문·사·철(文·史·哲) 분야에서의 충청국학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연구 방향을 제시했다.

2부는 강보승 충북대 교수가 사계 김장생과 우암 송시열의 교육사상 특징을 분석한 '충청지역 유학자의 교육사상 연구'를, 류인태 성균관대 연구원이 앞으로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이 구축해야 할 국학 아카이브의 방향성을 제안한 '국학, 아카이브, 데이터 액티브



'제1회 충청국학 학술대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즘'을, 왕화영 미국 에모리대(Emory University) 연구원이 기후예측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담은 '조선후기 예측과 여성'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종합 토론을 통해 주제 발표 내용을 토대로 충청유교문화 진흥 및 국학연구 저변 확대를 위

한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돈암서원이 있는 논산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문을 연다.

앞으로 충청 성현의 정신과 문화를 미래지향적으로 계승하고 한국 유교문화를 세계에 전파하는 거점 역할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는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운영과 더불어 논산시와 계획 중인 케이(K)-유교 에코 뮤지엄(eco museum)도 조성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문화유산과 041-635-3917

제31회 충청권 행정협의회

2022. 8. 29(월) 11:00 세종 지방자치회관



충청권 행정협의회 개최 충청권 4개 시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행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세종지방자치회관에서 열린 제31회 충청권 행정협의회에서는 국가철도망 계획 조기 추진 및 충청권 동서축 철도망 구축,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추진단 구성, 행복도시권 통합합승요금제 시스템 구성 등 3개 안건을 의결했다. /정책기획관 041-635-3115

“모두가 존중받는 양성평등 충남”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개최

충남도는 양성평등주간(9월 1~7일)을 맞아 9월 한 달간 도내 전역에서 '모두가 존중받는 행복한 동행'을 주제로 한 다채로운 기념행사가 열린다.

도 자체 행사는 9월 6일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시작으로, 양성평등 유공자 14명에 대한 시상식과 전문가 특강, 피켓 퍼포먼스 등을 준비했다.

7일에는 같은 장소에서 충남일자리진흥원 충남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도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경력단절예방 토크콘서트'를 연다.

도내 시군에서는 21일까지 기념식과 토크콘서트(아산시), 평등문화공감축제(당진시), 영화제(금산군), 양

성평등대회(예산군) 등 양성평등 인식 함양을 위한 행사가 진행된다.

도와 시군은 오프라인 행사외에도 누리집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 상에도 양성평등 홍보 동영상, 홍보 포스터 등을 게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만사형통 누리집(https://10004.chungnam.go.kr)에서 양성평등 정책을 제안받을 예정이다. 양성평등주간은 1996년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 '여성주간'으로 운영되다 전면 개정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2015년부터 '양성평등주간'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실질적인 양성평등정책을 지향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성가족정책관 041-635-2042

충남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미래

충남평생교육진흥원이 알려주는 충남학 -자동차산업 대응전략

자동차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이 구현되어 비주행시간에 차 안에서 음악을 듣고 오락과 게임을 하며 영화를 시청하는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다가올 미래에는 자동차가 스스로 주행하여 목적지까지 사람과 물건을 이동시켜 주며, 움직이는 사무실(Mobile office) 공간으로 활용되며, 도로 주행을 넘어 빌딩 숲 사이로 하늘을 날아다니는 플라잉 카(Flying car)로 변모될 것이다.

미래의 자동차는 자율주행차를 기본으로 하여 전기차, 수소차 등의 친환경 차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중차대한 전환의 시점에서 충남은 제대로 된 승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충남의 자동차산업은 아산, 천안, 서산, 당진 등 북부권에 집중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서산지역에 대규모 사업장들이 분포하고 있다. 2022년 월간 충남경제 3월



폭스바겐 차이나의 플라잉카 시제품 V.MO 사진/폭스바겐 제공

호에 의하면 전국 대비 자동차산업의 사업체수 비중이 9.7%, 종사자수 12.2%를 차지하고 있다고 한다.

충남 자동차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한 대응전략은 무엇이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첫째, 충남은 자동차산업을 발전시켜 독보적인 선진 자동차기술 독립지역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선진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해 대학과 대학원생들이 창의적인 전문인재로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 플랫폼(Learning Platform)을 혁신해야 한다. 이러한 대학교육은 철저하게 창의적인 문제해결능력을 구비하고 실용적인 기술개발 원리를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한다. 이 때 중요한 것은 인재들 간의 협업과 융합이 가능하도록 컴퓨터공학, AI기술, 전기

공학, 자동차공학 및 예술 분야 등의 학제적인 접근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둘째, 자동차산업의 생태계 전환을 위해서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생산을 위한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의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

셋째, 충남은 일부 전기차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프랑스, 인도, 독일, 영국 등의 선진국들은 2030년 이후 내연기관 퇴출 계획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기차, 수소차 등의 자동차산업의 성장이 연착륙될 수 있도록 관련 자동차부품기업들에게 충분한 자금과 선진기술(배터리, 차량용 반도체 기술 등) 개발과 도입 지원, ESG 경영컨설팅 지원 등이 절실히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충남은 자동차산업이 발전한 수도권과 인접해 있으므로 우수 인재가 이탈하기 쉬운 지리적 위치이다. 따라서 수도권으로 이주했던 우수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다시 다른 지역으로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주처 지원정책과 인센티브의 제공이 필요하다.

/신건권 호서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

새로운 시작, 꿈꾸는 곳에 너를 채워봐!
개교 이래 991명 공직 진출!

임시문의 **충남도립대학교 임시 O&A** **카카오톡 채널검색**

수시일정 ▶ 수시1차 : 2022. 09. 13.(화) ~ 10.06.(목)
▶ 수시2차 : 2022. 11. 07.(월) ~ 11.21.(월)

원서접수 ⇨ 진학 어플라이 www.jinhakapply.com | 유웨이 어플라이 www.uwayapply.com





치유농업으로 심리·신체적 변화 이끈다 충남도 농업기술원은 치유농업의 사회서비스 정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치유농업 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한다. 도 농업기술원은 치유목적의 스트레스 완화, 긍정적 심리상태 지지로 설정했으며, 시범운영을 통해 치유농업의 사회서비스 정착 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시범운영 대상은 가족상담, 아동 발달, 노인 및 장애인 복지 등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장들과 요양보호사이다. 현재 도내 치유농장은 59곳이 운영 중이며, 경중치매노인의 인지적·신체적·정서적 긍정적 변화를 위해 치매예방관리사업과 연계·협력해 추진 중이다. /충남도 농업기술원 041-635-6185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 총력

국제연맹, 충청권 평가 마무리
11월 개최도시 최종 발표 예정

2027년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구 하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최종 개최지 결정의 중요한 판단 근거로 활용될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 이하 국제연맹)의 충청권 평가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2027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충청권 공동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는 8월 29일 국제연맹 집행부로 구성된 평가

단이 기자회견을 끝으로 충청권 평가 방문 일정을 끝마쳤다고 밝혔다.
국제연맹 평가단은 지난 8월 26일 방한해 28일까지 세종충남대병원, 아산이순신체육관, 대전월드컵경기장 등 충청권의 대회 운영 시설을 점검했다.
이날 청주대 석우문화체육관을 마지막으로 시설 점검을 완료했다.
레온즈 에더 국제연맹 회장 대행은 기자회견을 통해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는 대학생의 축제가 돼야 한다”라며 “충청권이 준비한 다양한 프

로그램과 운영 방법, 개최 의지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를 최고의 대학 스포츠 행사로 만들기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평가단은 9월 17~21일 대회 유치 경쟁도시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를 방문·평가할 계획이다.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개최도시 최종 확정은 오는 11월 1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되는 국제연맹 집행위원회 총회에서 집행위원 투표로 결정된다.
/체육진흥과 041-635-3861

‘소중한 당신, 더 행복하게’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

15일까지 자살예방주간 행사

충남도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9월 10일)을 맞아 9월 한 달간 자살예방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는 9월 15일까지 자살예방주간으로 설정해 각종 이벤트 및 홍보를 집중 실시한다.
캠페인은 생명사랑문화제, 5대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자살예방 걷기, 우리 동네 정신건강복지센터 찾기 이벤트 등을 마련했다.

주’ 앱 챌린지를 활용해 진행한다. 도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고, 스마트폰에 걷수 앱을 깔고 ‘5대 종교단체와 함께하는 자살예방 걷기’에 참여한 뒤 15만 보를 걸으면 된다.
정신건강 복지센터 찾기 이벤트는 정신건강복지센터명이 들어간 인증샷이나 방문 인증샷을 찍어 충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누리집(www.chmhc.or.kr) 이벤트 게시판에 댓글로 참여할 수 있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2652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관리하세요”

자기혈관 숫자알기 캠페인

충남도는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주간(9월 1~7일)을 맞아 시군과 9월 한 달간 ‘자기혈관숫자알기-레드서클 캠페인’을 전개한다.
자기혈관 숫자알기는 자신의 혈압·혈당·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알고, 관리해서 건강한 혈관, 즉 ‘레드서클’로 심뇌혈관질환을 예방하는 것을 의미한다.
심뇌혈관질환은 우리나라 주요 사망원인이며 진료비 등 사회 경제적 부담이 크고, 선행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은 규칙적인 치료 및 관리로 예방 가능함에도 스스로 관리가

잘 안 되는 어려운 질병이다.
도는 심뇌혈관질환 인지율이 낮은 30~40세대를 대상으로 심뇌혈관질환 예방 생활수칙 등을 집중 홍보한다.
/건강증진식품과 041-635-4336

정상 혈압
수축기 120mmHg 미만
이완기 80mmHg 미만

정상 혈당
공복혈당 100mg/dL 미만

정상 콜레스테롤
총 콜레스테롤 200mg/dL 미만

수렁뱅이, 수렁배미

농업 관련 충청 사투리
-물이 고여 폭폭 빠져드는 논

“우리 동네선 수렁배미라곤 안허구 기냥 수렁뱅이라고 혀어. 물이 나서 깊이 빠져던 논을 그렇기 불렀어.”
“수렁뱅이 존 논이여. 물이 나잖아. 고라실이라 암때나 모심을 수있어.”

‘수렁뱅이’는 당진, 서산, 예산 등 충남서북지역에서 널리 쓰는 말이다. 같은 충남이라도 지역에 따라, 쓰는 사람에 따라 말은 달라진다. 어느 동네에 가면 수렁배미라 쓰고, 누구는 수렁배미, 누구는 수렁뱅이라 썼다. 그러나 말끝이 다를 뿐, 봉숭아라 쓰든 봉선화라 쓰든 상관없는 것처럼 서로 불편함이 없었다.
‘수렁뱅이’는 물에 잠긴 개흙이 곤죽이 되어 폭폭 빠져드는 논이다. 수리 관개 시설이 충분한 지금이야 ‘수렁뱅이’는 반갑지 않다. 진흙이 정강이나 허벅지까지 빠지

니 논 관리가 어렵고 모 심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청의 전통 농업에서 ‘수렁뱅이’는 가치가 달랐다. 물이 없으면 모를 심을 수도 거둘 수 없는 것이 논농사다. 충청의 논은 대개 천수답이었다.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작은 개울을 따라 논다랭이들이 계단을 이루었다. 하늘 끝에 닿은 천봉지기부터, 손바닥만한 샷갓지기, 뒷박지기 논들이 아래로 밀려 내렸다. 이들은 모두 하늘의 빗물에 기댈 수밖에 없던 것이다. 비가 오지 않으면 모내기할 수 없고, 장마철이나 겨우 심은 벼들은 늦가을이 되어도 여물지 않았다. 냉해가 하얗게 내려앉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사시사철 물이 고여있는 충청의 ‘수렁뱅이’는 더없이 좋은 논이었다. 물이 솟아나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다른 논에 물을 대줄 수 있는 논이었다. 충청도에서는 이런 좋은 논을 ‘고라실’이라 하는데, ‘수렁뱅이’는 모두 고라실에 속하는 논이 된다.
/이명재 충청언어연구소장

민간 자동차검사소 부실검사 NO

검사방법 준수 여부 등 점검

충남도는 민간 자동차검사소의 부실 검사를 근절하기 위한 지도점검을 한다.
점검은 30일까지 도내 145개 업체 중 67개 업체를 대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충남자동차검사장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진행한다.
도는 검사 불합격률이 현저히 낮거나, 불법·부실검사로 적발된 사례가 있는 업체, 민원이 자주 발생된 업

체, 화물차 검사비율이 높은 업체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자동차검사 시설·장비 지정기준 적합 및 유지 여부, 검사방법 준수 여부, 기술인력 관리 실태 등이다.
위반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되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보완사항은 위반사항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적관리 한다.
/교통정책과 041-635-4578



“평생교육의 산실, 충남시민대학 2학기 개강합니다”

천안·아산·논산 등 10개 시민대학
교육과정, 모집기간 확인 후 신청

충남시민대학의 2022학년도 2학기가
9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된다.

교육은 충남도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9월부터 11월까지 운영
된다.

각 시민대학별로 교육과정 모집기
간이 달라 충남평생교육진흥원 누리
집 ‘충남시민대학-시민대학별 교육
과정’ 메뉴(<https://www.cile.or.kr/kor/html/sub09/0902.html>)를 통해
살펴본 후 신청하면 된다.

충남시민대학은 천안, 아산, 공주,
보령, 논산, 금산 등 10곳이 운영 중
이며, 15개 시군으로 확대 운영할 예
정이다.

/충남평생교육진흥원 041-635-1225

충남시민대학 2022학년도 2학기 교육과정 ※ 모든 교육과정은 시민대학별 여건상 일정, 내용, 교육과정 자체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미리 문의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충남천안시민대학 수강문의: 041-550-0663-64 모집: 2022.8.1~9.14

영역	교육과정명	교육방법	개강예정
핵심	천안지역 독립운동	온라인	9.22(목)
	민주주의와 시민		9.15(목)
시민공통	우리가 사는 세상	온라인	
	인간의 가치 탐색		
시민교양	쿠킹(라운하우스)	대면	9.15(목)
	한국무용-살풀이춤(벽사류)		
	바리스타 베이직		
	사랑의 하모니		

충남아산시민대학 수강문의: 041-530-8344 모집: 2022.9.13~9.26

영역	교육과정명	교육방법	개강예정
핵심	세계시민과 나	대면	9.29(목)
	주산학글로벌 공동체		9.27(화)
시민공통	생활 속의 범죄예방	온라인	9.30(금)
	인간의 가치탐색		9.26(월)
시민교양	기초부터 시작하는 배드민턴	대면	9.27(화)

충남부여시민대학 수강문의: 041-830-6853 모집: 2022.9.1~9.14

영역	교육과정명	교육방법	개강예정
핵심	충남학 알아봐U	대면	9월중
	세계시민교육	온라인	
	생활용교육지도사 양성	대면	
	민주시민과 공동체 교육	온라인	
시민공통	디지털 문화유산 교육 지도사 양성	대면	9.17(토)
	나를 스토리텔링하는 여행		
시민교양	SW미래교육(4차 산업혁명)	대면	9.15(목)
	시민 정원사 양성		

충남논산시민대학 수강문의: 041-746-5772 모집: 2022.8.31~9.15

영역	교육과정명	교육방법	개강예정
핵심영역	영화로 보는 민주시민교육	대면	9.29(목)
시민공통	나를 찾는 여행인문학		9.27(화)
	인생, 그림책이 되다	9.30(금)	
시민교양	동화구연지도사	온라인	9.26(월)
미정	추가 개설 예정	미정	9.27(화)



인재개발원, 원내 교수요원 양성 박차

충남도 인재개발원은 8월 25일 원내 직원의 인
적자원개발(HRD) 및 예비교수요원의 역량 향
상을 위한 하반기 여행강의를 실시했다. 여행강
의 최종 심사 결과 가장 우수한 성적을 받은
직원 11명은 11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
원 주관 제40회 HRD 콘테스트(강의 경연 분
야)에 출전한다.
/충남도 인재개발원 041-635-6513

‘소문난 샵’ 금산지역 서비스 시작

9월 말까지 할인 행사 진행

충남도는 충남형 공공 배달앱 ‘소문
난 샵’의 금산지역 서비스를 정식 개
시하고, 이를 기념해 금산지역 내 배
달 주문 시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할인 행사는 9월 30일까지 진행하
며, 금산지역 내에서 소문난 샵을 이
용해 1만 5000원 이상 첫 주문 시
5000원 할인 쿠폰이 적용된다.

첫 주문 이후에는 재구매 쿠폰(5000
원을 선착순 500명에게 지급한다.
충남형 공공 배달앱 소문난 샵은
기존 민간 배달앱의 높은 수수료로
인한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
해 지난해 5월 민관 협력 협약을 체결
한 뒤 도입한 것으로, 현재 보령·
아산·서산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운



영하고 있다.
소문난 샵은 별도 광고비가 없고
중개수수료가 0.9%로 낮으며, 기존
민간 배달앱과 달리 지역화폐 결제
가 가능하다.
금산을 포함해 보령, 아산, 서산 등
도내 12개 시군에서 이용할 수 있다.
/경제소상공과 041-635-3314

소비자가 신뢰하는 충남 쌀 브랜드 ‘청풍명월 골드’

쌀 브랜드 10년 연속 전국 최고

충남도는 8월 30일 서울 더 플라자호
텔에서 열린 ‘2022 대한민국 소비자
대표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청풍
명월 골드’가 지역 특산물 부문 ‘쌀’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청풍명월 골드는 충남을 대표하는
쌀 브랜드로, 10년 연속 전국 최고 자
리에 오르는 성과를 거뒀다.
종자 선택부터 재배 방법, 수확 후
관리까지 실천 매뉴얼을 통해 재배·관

리하는 점을 높게 평가됐다.
대한민국 소비자 신뢰 대표 브랜드
대상은 한국브랜드경영협회가 주최하
고, 농림축산식품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가 후원한다.
/식량원예과 041-635-4046

찾아가는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만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충남도는 도로교통공단 대전·세종·충
남지부와 2022년 하반기 찾아가는 고

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진행한다.
교육은 9월 5일 공주시를 시작으로
12월 5일까지 도내 15개 시군을 순회
하며 실시한다.
교육은 1일 1회 진행하고 천안시(오
전 10시 시작)를 제외한 14개 시군에

서는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
지 2시간 동안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충남지부(☎042-520-0114)로 하
면 된다.
/안전정책과 041-635-2172

여름 무더위 원기회복하세요

배명순 명인의 건강음식 만들기

-더덕무침

【재료준비】

재료 : 더덕300g, 소금0.5T.
양념 : 고추장1T, 고추가루1T, 마늘
0.5T, 진간장1T, 물엿0.5T, 설탕0.5T,
소금한꼬집, 참기름1T, 통깨, 쪽파3
줄, 식초1~1.5T.

【만들기】

1. 더덕을 깨끗하게 씻는다.
2. 냄비에 소금과 물을 넣어 팔팔
끓인다.
3. 물이 끓으면 더덕을 넣고 30초
정도 데친 다음 찬물에 행군다.

4. 칼로 머리 부분을 자른 다음 세
로로 칼집을 넣어준다.
5. 곁따라 옆으로 껍질을 벗긴다.
6. 6cm길이로 자른 다음, 0.5cm두께
로 도톰하게 썬다.
7. 도마에 놓고 밀대로 살살 두드려
준 다음 찢어준다.
8. 만들어 놓은 양념에 버무리려 완성한다.

※ 더덕은 도라지와 마찬가지로 기
관지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라면
자연산 더덕 섭취로 도움을 받아도
좋다. 더덕에서 나오는 쓴맛과 진액
은 더덕속 사포닌이라는 성분이 함
유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사포닌
성분은 인삼 성분 중 하나인데 원기

회복은 물론이고 면역력을 증진시킬
때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음식으로 섭취하면 건강한 폐를 만
들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꾸준히 섭
취하면 체내에 존재하는 나쁜 콜레
스테롤을 배출시키고 혈관을 건강하
게 유지시켜 준다고 한다. 더덕은
원기 회복 기관지, 혈관, 당뇨, 노화
예방에 도움을 주는 우리몸에 유익
한 식재료 중의 하나다.



배 명 순
요리연구가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담레품 혜택이 돌아오고
충청남도는 더 살기 좋은 고장으로 거듭납니다.

2023.1.1 시행

내 고향 충남을 살리는 이웃 특별한 기부

고향사랑 기부제란?

기부자

고향사랑 기부금
세액공제, 담레품

충청남도

담레품 생산·제조
주민복지 사업

충청남도민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사업 시행

농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소멸지역 지원 사업

지역 공동체 활동 촉진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 등

대한민국의 힘 '비상' 발판 놓은 힘센충남

'힘센충남' 이 내년 정부예산 8조 6553억 원을 우선 확보하며, 민선8기 대한민국의 힘으로 비상하기 위한 발판을 닦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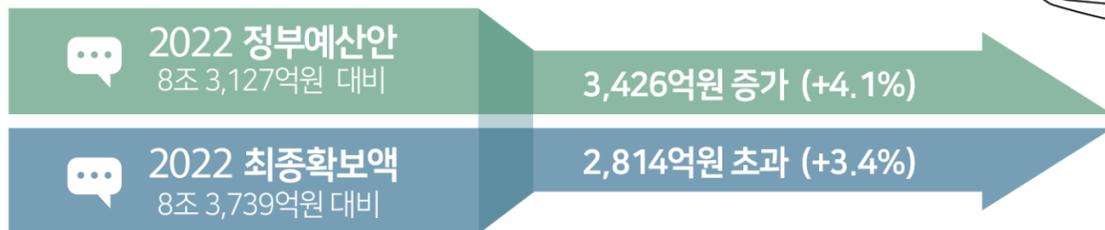
도는 정부의 긴축재정에도 올해 최종 확보 국비보다 3000억 원 가까이 더 거두는 성과를 올렸으나 도민 기대치에는 못 미친다고 보고, 증액 반영을 위해 국회 심의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도정목표별 주요 국비 확보 현황을 살펴본다.

/김혜동 khd1226@korea.kr



2023년 정부예산안 확보 개요 ▶ 정부예산안 확보액 : 8조 6,553억원



(단위 : 억원)

구 분	정부안				국회확정			
	국가예산		국비확보		국가예산		국비확보	
	예산	증가율	예산	증가율	예산	증가율	예산	증가율
2022년	604.4조	8.3%	8조3,127억	6.5%	607.7조	8.9%	8조3,739억	7.3%
2023년	639.0조	5.2%	8조6,553억	4.1%				

도정 비전·목표별 국비확보결과

도정목표별 주요사업 (단위: 억원)

신규 (green line) 계속 (blue line)



힘차게 성장하는 경제		▶ 추진전략 -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교통·물류 인프라 구축		국비 23년 예산		국비 23년 예산	
'23~'25	충남 산업단지 대개조	5,022	110	'10~'26	장항선 개량 2단계 건설	8,823	1,121
'23~'27	탄소포집기술 실증센터 구축	280	10	'20~'27	평택~오송 2복선화 건설	81,816	1,440
'23~'25	이차전지 기술실증 및 평가지원 플랫폼 구축	96	26				
지역이 주도하는 발전		▶ 추진전략 - 해양 관광·신산업 육성 및 살기좋은 농어촌 조성		국비 23년 예산		국비 23년 예산	
'23~'26	원산도 해양레포츠센터 조성	150	5	'20~'24	태안 해양치유 시범센터 조성	170	49
'23~'24	축분 고체 연료화 생산시설 구축	126	57	'22~'24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단지 조성	90	43
'20~'23	해양바이오 산업화 인큐베이터 건립	174	59				
함께하는 따뜻한 공동체		▶ 추진전략 - 균등한 의료서비스 제공 및 도민 안전체계 구축		국비 23년 예산		국비 23년 예산	
'23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원	7.5	7.5	'20~'23	TBN충남교통방송국 건립	277	31
'22~	분만취약지 지원	24.3	8.5	'21~'25	서산의료원 병상 증축	200	10
'23	고성능 화학차보강	5.3	5.5				
가치있고 품격있는 삶		▶ 추진전략 - 지역 문화관광 진흥 및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		국비 23년 예산		국비 23년 예산	
'23~'24	해미국제성지 디지털 역사체험관 조성	21	9	'19~'28	충청유교권 광역관광개발	1,556	133
'23~'24	천안K컬쳐 박람회	10	2				



그래픽/김선이



3년 만에 현장 축제, 신(辛)나는 여행, 매콤달콤 '청양'

다양한 볼거리·체험 프로그램 마련
판매로 지역경제활성화 기여

[청양] '2022 청양고추·구기자축제'가 26일부터 28일까지 3일동안 청양읍 백세건강공원 일원에서 3년 만에 방문객들을 맞았다.

올해로 23회째를 맞은 축제는 '신(辛)나는 여행, 매콤달콤 청양으로'란 타이틀로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해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지역 농·특산물 전시와 판매로 농가소득 증대와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했다.

청양군(군수 김돈곤)은 현장·대면 축제와 온라인·이벤트 판매를 병행해 전 세대가 함께 즐기며 코로나19에 지친 심신을 달래는 힐링 축제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천원의 행복 고추를 담아라'와 고추담 쌀기, 매운 음식과 김치 만들기, 농작물 수확 체험 등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의 참여행렬이 끊이지 않았으며, 마술, 뽀로로, 무

지컬 공연 등을 선보여 더욱더 풍성한 축제를 만들었다.

청양군의 '행복 콘서트'는 26일 장민호, 나태주, 정다경 등의 공연을 시작으로, 27일에는 김연자, 노라조, 남승민 등의 무대가, 28일에는 뮤지컬 '넙과 함께'와 지역 가수들이 함께해 3일간 흥겨운 음악이 끊이지 않았다.

고추, 구기자 등 농작물 수확 체험은 해가 갈수록 인기를 더하는 프로그램으로 체험객들은 농부의 수고스러움과 우리 먹거리의 소중함을 자연스럽게 느꼈다.

이번 축제에서는 청양축협(조합장 노재인) 주관 '청양 더 한우' 브랜드 시식 이벤트로 청양산 명품한우를 알렸으며, 시식과 함께 진행한 돌림판 이벤트로 즉석에서 다양한 상품과 한우를 증정해 방문객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 밖에도 청양산 고추를 사용하는 '처갓집양념치킨' 시식과 구기자주 맛보기, 청양고추 보리밥 비벼먹기, 구기자 썰리 맛보기, 매운맛 페스티벌, 한돈 시식 등 청양의 다채로운 맛을 즐기는 기회를 제공했다.



"1000원 내고 마음껏 담아가세요" 지난달 26일 충남 청양군 청양읍 백세건강공원에서 열린 '2022 청양 고추·구기자 축제'에서 관광객들이 세부 프로그램인 '1000원의 행복 고추를 담아라'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1300여 대에 이르는 주차 공간과 이동식 화장실, 휴대전화 사용 설치, 포토존 확대 등을 마련했다. 자들을 위한 중계기 추가설치, 충전기 /청양군 제공

부여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개최

'어라하의 유산' 주제 체험 다채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까지

[부여] 부여군이 문화재청 공모사업인 '2022 부여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을 오는 9월 16일부터 10월 15일 까지 한 달간 개최한다.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보다 쉽게 알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즐기게 하기 위해 마련한 세계유산 활용사업으로서, 세계유산에 첨단 미디어·디지털 기술을 접목했다.

부여군은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 행사를 앞두고 공식 홈페이지와 SNS 개설도 마쳤으며, 홈페이지를 통해 나이트워크투어 사전 예약도 받는다.

이번 세계유산 미디어아트 페스티벌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미디어아티스트들과 협업해 부여 백제역사유적지구 세계유산을 재해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행사 주제는 '어라하의 유산'으로 정했다. '어라하'는 백제왕을 일컫는 옛말이다. 백제 후기 왕도문명의 대표 사례인 관북리 유적과 부소산성을 재조명한다. 백제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사비백제의 근원적 공간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그 위대한 유산에 남겨진 백제인의 꿈과 이상향, 현재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치를 들여다본다. 체험형 미디어아트로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계획이다.

미디어아트 체험코스는 크게 3가지로 구성해 공을 들였다. ▲1코스 '사비연'은 부소산문을 배경으로 펼쳐진다. 미디어파사드 쇼와 미디어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 백제문화의 우수성을 경험할 수 있다. ▲2코스 '사비혼'은 울창한 산림이 우거진 부소산성 산책로를 따라 체험할 수 있는 코스다. 천년왕국 백제를 향한 '어라하의 꿈'을 주제로 다양한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마련돼 있다. ▲3코스 '사비경'

에선 어라하가 전하는 사비백제 유산을 만나볼 수 있다. 대형 돔 미디어영상관에서 몰입감 있는 영상이 상영될 예정이다.

모든 코스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나이트워크투어' 프로그램은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이나 현장에 약을 완료해야 참여 가능하다. 역사 스토리텔러와 함께 2코스를 체험하는 프로그램으로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백제신기'가 재미를 더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은 '어라하의 유산' 공식 홈페이지와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9월 16일부터 정립사지 일원에서 동시 개최하는 '2022 부여 문화재 야행'도 놓치지 말아야 할 행사다. '정립야 사비로와!'란 부제로 ▲사비소망 등불거리 ▲백제에인 퍼포먼스 ▲이야기로 만나는 사비백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한다.

/부여군 제공

9월 독서의달 행사 '풍성'

예산군공공도서관 참여 당부

[예산] 충남 예산군 공공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지역주민을 위한 다채로운 독서문화 행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도서관은 9월 한 달 동안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간단한 미션을 통해 독서활동에 재미를 더하는 '책크아웃 독서챌린지' ▲도서연체자의 대출정지를 풀어주는 '연체지우개' ▲도서대출 최대 권수를 10권으로 늘

려주는 '대출권수 up' ▲독서퀴즈 ▲과월호 잡지 배부 등을 운영한다.

체험행사는 ▲5~6세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 그림책을 감상하고 플라워아트 체험을 통해 감성과 창의성을 키우는 '그림책 꽃이 피었습니다' ▲초등학생을 위한 마크라메(매듭) '책갈피, 도어벨 만들기' 및 한지공예 '독서 무드등 만들기' ▲성인을 대상으로 준비된 가족공예 '만년 다이어리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예산군 제공

전입 대학생에 연 1회 20만원 지원

[논산] 충남 논산시는 관내 대학교 재학을 목적으로 타지에서 전입한 대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입 대학생은 연 1회 20만 원씩, 최대 3년까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받게 된다.

신청 자격은 관내 대학교 재학(건양대학교, 금강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바이오캠퍼스)을 목적으로 최초 전입한 날로부터 지급기준 일인 2022년 8월 31일까지 1년 이상 논산에 주소지를 둔 전입 대학생이다. 휴학생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9월 1일부터 16일까지다. /논산시 제공

제가 들어줄게요. 당신의 말도, 당신의 짐도

365일
24시간

-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24



“올가을 대풍 들길” 가을 꽃게잡이 본격 시작 충남 태안반도에서 지난 21일 금어기 해제 후 가을 꽃게잡이가 본격 시작됐다. 태안 안면읍 백사장항에서는 첫날 조업 어선들이 지난해 1.5배보다 많은 총 10가량을 잡아 대풍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동아리 활동하고 지원비도 받고!

태안군 청년 프로그램 추진 동아리에 최대 200만 원

[태안]태안군이 지역 청년들의 문화교류 및 지역정착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 커뮤니티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충남도 내 거주하는 만 18~39세 청년으로 구성된 동아리에 활동비를 지원하는 '2022 태안군 청년동아리 지원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오는 9월 16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지역착근형 청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번 지원 사업은 청

년들 간 취업 및 창업과 연계된 교류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선정된 동아리에는 최대 20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전문가 매칭 및 멘토링도 지원될 예정이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3명 이상의 팀을 구성해 태안군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이메일(apple7up@hanseo.ac.kr)로 제출하면 된다. 활동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2개월 간이다. 지원 분야는 문화예술과 IT 및 ICT 기술, 문화 콘텐츠, 창업 등이다. /태안군 제공

태조산 무장애나눔길 '새단장'

10억 투입 총1.4km 산책길 조성

[천안]충남 천안시가 태조산 공원 일대에 조성한 '무장애나눔길'을 새롭게 조성, 시민들에게 공개했다. 시에 따르면 시는 202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시민 누구나 자연을 느끼면서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총 1.4km, 노폭 2m에 이르는 산책길인 무장애나눔길을 만들었다. 무장애나눔길은 누구나 숲의 혜택

을 누릴 수 있도록 경사도 8% 이하의 산책로로 만들어져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노약자 등 보행 약자들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숲 체험이 가능하다. 2020년 녹색자금 공모사업에 선정된 천안시는 사업비 6억 원을 들여 지난해 4월 태조산 무장애나눔길 1차 사업을 완료해 이어 사업비 10억 원을 들여 태조산 산림레포츠단지 입구까지 산책로를 조성했다. /천안시 제공

“추석 선물, 만세보령 농특산품으로 하세요”

머드화장품, 삼광미 골드 등

[보령]보령시는 추석을 맞아 가족과 친구, 고마운 사람들에게 선물할 품질 좋고 저렴한 '만세보령 농특산품'이 판매 중이라고 밝혔다.

오스테라피 브랜드 보령머드화장품은 천연 미네랄이 가득한 양질의 바다 진흙을 가공해 만들어낸 '머드파우더'와 '머드워터'가 함유돼 피지를 흡착하고 모공 속 노폐물 제거를 도와 피부 노화 방지와 피부 관리에 효능이 있다.

구매는 직영점인 보령축제관광재단 머드박물관, 재단 홈페이지에서 구매할 수 있다. 리뉴얼 세트 상품 5종은 9



만세보령쌀

서 각각 최우수와 우수로 선정됐고, 2022년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받는 등 최고의 맛과 향, 외관, 품질을 자랑한다.

삼광미 골드는 택배비 포함 10kg 기준으로 2만6000원에 출고되고 있으며

월 8일까지 20% 할인 판매 중이다.

삼광미 골드는 2015년과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명품쌀 평가에서

반건조 수산물물은 5만 원부터 15만 원까지 다양한 선물 세트가 있다. 구매는 무창포자율관리어업공동체 어업회사법인에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시는 요암동에 위치한 로컬푸드 직매장, 보령해저터널 홍보관 내 농특산품 홍보관, 서해안고속도로 대천휴게소 내 행복장터에서 지역 우수 농특산품을 판매하고 있다.

/보령시 제공

‘일+휴가’ 함께 하는 위케이션 참여자 모집

서천군, 창업아이디어 모색 지원

[서천]충남 서천군이 9월 한 달 동안 장항을 중심으로 지역자원조사를 하면서 창업아이디어를 모색하고 힐링하는 '위케이션'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위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일정기간 여행지에 머무르며 일과 휴식을 함께하는 최근 청년층이 선호하는 여행형태다.

특히, 서천군은 자연환경, 전통문화 역사, 산업기반 등이 풍부해 지역자원 조사와 여가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어 요즘 선호되는 위케이션에 적합한 지역이다.

올해 처음으로 시도되는 서천형 위케이션 프로그램 '위때'는 장항읍과 한산면 2곳에서 서로 각기 다른 주제와 활동으로 장항읍에서 먼저 시작해 참여자를 모집한다.

참여자는 1기(9월 마지막 주)와 2기(10월 둘째 주)를 각각 5명 안팎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여자 일정에 따라 최장 7일까지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다.

세부 프로그램으로 ▲장항 청년창업자 멘토강의 ▲장항산단 견학 ▲지역 청년과의 소통행사 등이 구성돼 있으며, 참여자별 개별 자원조사와 창업아이템 구체화 작업 등도 함께 지원될 계획이다. /서천군 제공

안심 관광지 '서산버드랜드' 관광객 회복세

올해 5만명...작년 대비 133%↑ 연중 체험프로그램 다채 운영

[서산]코로나19로 한동안 줄었던 충남 서산버드랜드 관광객이 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올해 8월 말까지 서산버드랜드를 방문한 관광객이 약 5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방문객 2만4000여 명과 비교해 3만2000여 명(133%) 늘어난 수치다.

서산버드랜드 방문객은 지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날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늘기 시작했다. 5월 한 달과 여름방학 특별 프로그램에 1만 명이상이 찾는 등 방문객 수가 예년 수



서산버드랜드 상시 프로그램 모습.

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서산버드랜드는 올해 관광객 증가 추세를 봐서 연말까지 10만 명 이상 넘

어설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숲속 생태 체험, 새 모이통 만들기, 자연물 장신구 만들기 등 상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산책로를 정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황새 방사장 설치, 황새 입식, 야생동물 재활교육센터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을 통해 체험 관광 활성화에도 힘을 쏟기로 했다.

오는 10월에는 천수만을 찾아온 겨울 철새를 주제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 철새기행전을 열 예정이다.

김종길 서산버드랜드 소장은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즐거움과 추억을 선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산시 제공

계룡농업기술센터 교육과정 호응

[계룡]계룡시 농업기술센터가 지난 23일부터 9월 13일까지 총 4회에 걸쳐 중년 남성 16명을 대상으로 '아빠의 건강요리' 교육과정을 진행하면서 참여자들과 가족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과정은 건강 요리를 직접 만들고 가족들과 함께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려 하는 중년 남성들을

위해 개설했으며 수강생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평일 퇴근 후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진행되고 있다.

교육 내용은 순두부해물찌개,오이 나물,베이컨감자스프,골뱅이무침소면 등 요리를 처음 접하는 남성들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메뉴와 특별 메뉴로 구성했으며 식재료 손질 및 양념장 활용 등 기초 조리 방법도 함께 소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계룡시 제공

추석맞이 아산페이 10% 할인

시각장애인 이용 편의 도모 지류상품권에 점자 적용

[아산]아산시가 명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석을 앞두고 아산페이 10% 할인 판매분을 추가 발행해 9월 1일부터 판매한다.

정부의 지역상품권에 대한 예산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1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아산페이는 총 260억원(모바일·카드 200억, 지류 60억) 규모로, 개인은 월 100만원(모바일·카드·지류 통합한도), 법인은 지류 상품권에 한해 월 50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다.

모바일형 아산페이는 지역 상품권chak 앱에서, 카드형과 지류형은 농협, 신한 및 우체국(지류형은 일부 지점)에서 구매하면 된다.

특히, 이번에 발행되는 지류형

상품권부터는 점자 인쇄가 도입된다. 이는 시각장애인이 지류형 상품권의 종류와 금액을 보다 편리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점자 인쇄를 도입해달라는 국민제안을 채택한 것이다.

아산시는 아산페이의 사용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류 상품권 점자 인쇄 도입 등 시각장애인의 사용 편의성 제고와 아산페이의 이용층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것이다.

박경기 시장은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산품부터 식재료까지 물가가 크게 올라 시민들의 시름이 깊어짐에 내린 결단"이라면서 "아산페이 할인 판매분 추가발행이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어드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아산시 제공

참스승 '밝맑 이찬갑' 선생

내포칼럼



백승종
전 서강대 교수

홍성 풀무농업기술학교 창립자
평민·농민 교육의 중요성 일깨워

“깨어있는 정직·순수한 시민 교육”
날마다 ‘밝고 맑은’ 일상생활 강조

충청남도 홍성군 홍동면 팔괘리에 가면 풀무고등농업기술학교가 있다. 이를 줄여서 풀무학교라고 부르는데, 우리나라 대안 교육의 선구이자 대표적인 학교라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풀무학교 졸업생들 덕분에 홍동면 일대는 우리나라 최고의 유기농업 지역으로 손꼽힌다. 교육의 힘이 정말 크다는 생각이 저절로 든다.

풀무학교는 1958년 4월에 문을 열었으니, 한 그루 나무로 비유하더라도 어언 66년이나 된 성목(成木)이다. 처음 학교를 연 것은 두 분 선생님이였다. 한 분은 그곳 출신인 주옥로 선생이요, 또 다른 한 분은 멀리 평안도 정주에서 내려온 이찬갑 선생이였다. 두 분은 평생을 오직 한 가지 화두를 품고 사셨다고 한다. “어찌하면 이 땅에 진정한 의미로 새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오래전에 한 작은 인연이 닿아 나도 그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쳤다. 그때 나는 이 학교의 창립자인 두 분의 행적을 기록한 글을 찾아서 학생들과 함께 읽고 뜻을 되새기기도 하였다. 지금도 잊히지 않는 한 구절이 있다. 이찬갑 선생의 유언이였다.

“내가 교단에서 쓰러져 죽거든 가족에게도 알리지 말라. 풀무학교 뒷동산에 한 길 땅을 깊이 파서 선 모양 그대로 나를 묻어라. 그리고 나의 주검 위에 한 그루 나무를 심어서 이미 죽은 내가 무럭무럭 자라날 어린나무의 거름이 되게 하라. 묘비 같은 것은 세울 필요가 없다.”

이 얼마나 굳센 결의에 찬 스승의 거룩한 말씀인가. 자신은 교단에서 쓰러질 때까지 학생들을 열심히 지도할 것이라고 다짐한 것이요, 죽은 다음에도 학교 후원에 선 채로 묻혀 자라나는 한 그루 어린나무의 자양분이 되겠다는 것이였다. 가족도 있고 살 것이

며, 사후에도 한 그루 나무가 되어 정든 학교를 지키겠다는 피어린 각오가 묻어난다.

이찬갑(1904-1974) 선생은 그분 세대가 모두 그러하였듯 고난의 한평생을 사셨다. 어린 시절에 일제 강점기의 불운을 겪었고, 조국 해방을 맞았다고는 하지만 곧 동족상쟁의 비극과 독재 정권의 폭력과 만성적 가난에 시달렸다.

지금처럼 평화롭고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고의 세월이였다. 온 민족이 고난의 질곡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찬갑 선생과 같은 선각자들은 오직 교육을 통해서만 우리 사회의 미래를 개척할 수 있다고 확신하였다.

혼탁한 세상 물정을 목격하고, 이찬갑 선생은 모든 시민이 순수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일깨우는 교육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였다. 풀무학교 개교식에서 선생이 다짐한 바는 일류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한 일도 아니고, 권력과 재물을 움켜쥔 성공을 약속하지도 않았다. 부디 고난에 찬 한국역사의 짐을 두 어깨에 떠메고 갈 새로운 평민이 되자고 다짐할 뿐이였다. 진실한 평민으로서 날마다 밝고 맑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 무거운 역사의 짐까지도 명랑하게 웃으며 지고 가는 사람을 키우고 싶다고 말하였다.

이찬갑 선생 자신이 바로 그런 평민이 아니었을까도 싶다. 마을 길을 걷다가도 선생은, 행어 농민의 손발을 다치게 할까 봐 땅바닥에 함부로 내버려진 유리 조각을 주어 말없이 호주머니에 넣었다. 세상 물정에 되바라지지도 못하고 남을 기어이 이기려는 경쟁심도 없는 사람이 바로 이찬갑이였다. 모두가 그리워하는 진정한 스승은 그와 같은 “바보”의 모습일지도 모른다.

심혈관질환의 골든타임

I 공공의료원 칼럼

우리나라 전체 사망원인의 1/4이 심뇌혈관질환이고 충남은 인구 10만 명당 급성 심장정지 발생률이 83.9 명으로 전국평균 61.6명보다 높은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인프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심혈관 질환을 간단히 설명하면 심장을 먹여 살리는 세 가닥의 혈관이 왕관처럼 생겼다가하여 관상동맥이라고 하는데 어떤 이유든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거나 좁아져 필요한 양 만큼의 혈류량이 공급되지 못하게 되면 심장 근육 내 대사산물이 축적되고 저산소증에 빠지게 되어 심장 기능의 장애가 오는데 이를 관상동맥질환이라 총칭하고 협심증과 심근경색으로 분류됩니다.

협심증의 증상은 흉통이 가장 빈번하고 호흡곤란, 허약감, 실신 등이 있고 약 20%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증상이 생기면 신속히 의사와 상의 후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상에서는 막연하게 좋아지겠지 하는 안이한 생

각, 위장병과의 혼동, 바쁜 일상생활 그리고 상대적으로 부족한 심장내과 전문의 등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둘째로 신속한 환자 후송의 문제인데 지리적으로 수도권이나 대전권으로의 방향이 항상 교통체증으로 시간이 오래 걸려 닥터헬기 이외에는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며, 셋째로는 이미 진행된 관상동맥질환은 상당수가 후유증이나 다른 장애를 초래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여러 유관기관과 실무진들은 지역 내 심뇌혈관센터를 유치하려 노력하고 있으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가장 현명한 것은 질환의 예방과 선제적인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의 노화와 가족력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지만, 금연은 필수이고 혈압 당뇨 비만 고지혈증관리를 동네 주치의의 통틀 철저히 하고, 개인적으로는 소식하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겁게 사는 습관이 중요 할 것입니다.

지역 내 공공저점병원이 해야 할 일은 만성 질환의 다각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의

식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가용한 의료 장비들과 좋은 프로그램개발을 통해 질환을 미리 발견하여 약물 치료, 라이프 스타일 리모델링을 꾀하고 대학병원과 연계하여 적절한 시기에 시술을 받게 도와드리고 추후 관리해 드리는 것입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심장초음파, 경동맥초음파와 CT심장혈관조영술을 통하여 관상동맥질환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데, 특히 CT심장혈관조영술은 유증상자는 물론이고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고령자는 질환이 있을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년 검사를 받아보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하루빨리 지역 내에도 심뇌혈관센터가 유치되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주민들의 건강 지킴이가 되길 기대하면서, 고령화와 지역적인 한계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길은 교육과 예방임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박동원
충청남도서산의료원
진료부장

약속은 지켜졌다

생생현장리포트



최영민
천안신문 기자

지난 8월 29일,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민선 8기 출범 후 5번째 시·군 방문지로 천안을 찾았다. 지난 선거 당시에도 김 지사는 천안과 인근 아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역설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많은 공약을 내렸고, 천안과 아산 시민들은 그러한 김 지사를 최종적으로 택했다.

이번 방문에서 지역언론들의 이목을 끌었던 점은 지난 민선 7기 양승조 도정에서 약속했던 대한민국축구종합센터 건립에 필요한 도비 400억 원 지원 약속이 이어질 수 있느냐였다. 대부분 ‘정권’이 바뀌면 이전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따져보고 예산이나 기타 부분에서 필요치 않다고 판단했을 때 ‘폐기’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선회하는 게 일반사였다.

하지만 이번 방문에서 김태흠 지사는 지역 언론과 간담회 자리와 시민과의 대화 자리에서 모두 “축구종합센터 건립에 필요한 도비 400억원 지원 약속은 지켜질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천안시민들은 환영했다. 400억원에 더해 국비 200억원이 지방양양사업비로 전환돼 결국 600억원을 충남도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에서 심적인 부담이 크지만 ‘시민들과의 약속’이라는 큰 전제하에 통 큰 결단을 내린 것이다.

사실 축구종합센터는 유치 확정 당시부터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라는 비관적 여론이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도 그럴 것이 천안시가 부담해야 할 예산도 만만치 않고, 이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 역시 천문학적 액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여기에 현재 NFC(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를 보유하고 있는 경기도 파주시도 트레이닝센터로 인해 지역에 돌아오는 경제적 이득이 크게 없었다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고 있어 천안에서 이를 유치한 것이 과연 지역경제 발전이나 일자리 창출 등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많다.

그러나 스포츠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각급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이 진행되고, 이를 보기 위한 팬들이 드나들고, 각종 전지훈련, 회의 등 부수적인 요소까지 더해진다면 축구종합센터는 천안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대한축구협회와 맺은 협약 내용을 보면 이 축구종합센터에는 대한축구협회 직원 모두가 현 서울 신문로에 자리한 협회에서 천안으로 이전하게 된다. 명실상부 우리나라 축구의 중심부가 서울에서 천안으로 바뀌는 것이다.

축구종합센터는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활발히 건립 작업이 진행 중이다. 천안이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의 중심, 아시아 축구의 중심이 될 수 있을 날이 올 수 있을지 기대해보자.

독고선생님과 해홍이의 유럽 여행

소중애 문학관의 책들(7)



소중애 동화작가

내 평생 가장 자랑스러운 일중 하나가 1989년에 다녀 온 유럽 여행이다. 혼자 배낭을 메고 25일간 다녀온 여행이었다.

5학년 사회시간에 세계 여러 나라에 대해 가르치다가 혼잣말로

“직접 가서 보고 느끼고, 너희들을 가르쳐야 하는데...”

했더니 아이들이

“어느 세월이요.”

하고 도발하였다. 그래서 겨울방학에 떠난 여행였다.

여행 안내서와 지도를 가지고 저렴한 영어로 돌아다녔던 여행은 지금도 내 가슴을 뛰게 한다.

돌아와 우리 반 아이들에게 이 벅찬 여행을 이야기했는데 감흥이 없었다. 그래 한 마디 했다.

“겉도 낫어. 국제 인신 매매단에게 잡혀 팔려가면 어쩌나하고 말야.” 그러자 아이들이 콧방귀를 췌다. “선생님요? 에이-”

포도주를 사면 그 나라 말로 건배를 외치며 마셨다. 나도 포도주를 샀다. 모두들 한국말로 ‘건배’를 외쳤다. 배에서 내려서는 함께 유스호스텔을 찾아 다니기도 했다. 우리는 거쳐 온 나라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나라 뒷담화였다.

가장 친절한 나라는 오스트리아라는데 만장일치였고 가장 불친절한 곳은 프랑스라는데도 만장 일치였다.

처음으로 혼자 가는 배낭 여행이라서 나는 꼼꼼하게 계획을 세웠다. 그 결과, 볼 곳, 갈 곳을 다 갔는데 프랑스에서만 두 군데를 못 갔다. 화가 로트랙이 술 마시며 그림 그렸던 물랑루즈와 영화 제3 사나이에 나오는 하수구였다. (200년을 내다보고 만든 하수구는 크고 넓어 유명하다). 그 근처까지 갔는데도 찾지 못해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고개를 돌렸다. 한 무리의 경찰들을 만나 지도를 보여 주며 물었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참 서운한 나라였다.

30년이 지난 뒤 프랑스에 다시 갈 기회가 있었다. 공원에 땀구는 개들은 여전히 사람들이 바뀌었다. 상점과 숙소에서 영어 사용했고 거리에서 길을 물으면 영어로 대답해 주는 젊은이들이 많았다. 하하하. 프랑스도 살려고 바뀌는구나. 통쾌하게 웃었다.

물랑루즈도 찾고 하수구도 찾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번에는 내가 시간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구경만 했다.

지게 할아버지, 당진 고대면 ‘마을교사’ 되다

농기구 미니어처 만드는 손낙서 옹 60세 되던 해 건강 위해 시작 전시관 열고 마을주민과 공유

‘지게 할아버지’ 손낙서(88) 옹이 마을교사가 됐다. 육순에 시작한 나무 전통공예가 구순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게, 맷돌, 절구, 쟁기 등 잊혀져가는 옛 농기구는 손 옹의 손에서 작품으로 다시 태어난다. 한때는 지게에 작품 한가득 담아 지고 다니며 팔러 다니곤 해 ‘지게 할아버지’라고 기억하는 사람이 더 많다. 지게 할아버지가 이제 ‘지게 선생님’이 됐다. 그리고 곧 마을에서 아이들을 만날 예정이다.

손 옹은 옛날에 쓰던 농촌의 물건을 작게 만드는 농기구 미니어처를 제작하고 있다. 부러진 나무가지를 직접 가져다 깎고 다듬고 구멍을 내어 끼우고 맞춘다. 꼬박 하루 걸려 만든 지게부터 이들은 집중해야 완성할 수 있는 물레까지 여전히 왕성한 작업을 통해 작품을 만든다. 그가 처음 공예를 시작한 것은 건강 때문이었다.

예순셋 무렵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다. 갓 태어난 손주를 돌보는 것도 힘에 부쳤다. 그 길로 하루



두 갑씩 피우던 담배도 끊었다. 일은 고사하고 마실 다니는 것조차 어려웠다고.

가족의 돌봄으로 건강을 회복하면서 시작한 일이 나무를 구해 오는 것이었다. 산에서 나무를 가져와 어렸을 때 봤던 것들, 직접 써 온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때 처음 만든 것이 지게였다. 우리가 아는 지게보다 훨씬 작은 크기의 지게를 만들었다.

지게를 다 만들고 뿌듯함을 느낀 손 옹은 그 길로 계속 나무공예를 이어갔다. 물레, 절구, 쟁기 등 다양한 농기

구를 만들었고 그의 집 한 편에 마련된 작업장에 전시했다.

하루 서너 시간 그렇게 작품에 몰두한 것이 근 30년이 됐다. 그는 “건강이 안 좋아 시작했는데 작품을 만들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며 “이것들이 날 살린 셈”이라고 말했다.

아흔을 바라보는 미수(米壽)의 나이로 손낙서 옹은 선생님이 됐다. 아이들이 마을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마을 주민들이 교사가 되는 마을교육이 고대면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손 옹은 지난달 20일 출범한

고대교육마을자치회에서 마을교사로 참여하게 됐다. 이제는 박물관에서나 볼 수 있는 지게나 물레, 맷돌을 아이들에게 소개하고, 또 함께 만드는 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어김없이 자전거를 타고 마을을 다니는 손 옹이 어느 날 고대마을자치회 읍터를 찾았다. 센터 앞 테라스를 꾸미던 고대마을교육자치회 회원들에게 손수 만든 작은 소쿠리를 선물했다. 이후 한 회원이 손 옹도 함께 마을교사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에 회원들이 공감하며 마을교사로 참여하게



▲전시관에서는 베를, 물레 등 손 씨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다.

◀손낙서 씨가 자신이 만든 미니어처 지게들을 소개하고 있다.

된 것이다. 그렇게 고대마을교육자치회 출범식에 손 옹의 작품이 전시됐으며, 손 옹이 만든 나무팬이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됐다. “작품 맹글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하. 그래도 이것 때문에 건강을 되찾았지. 아직도 눈이 좋아 안경 안 쓰고도 작품 맹글거든. 아이들이 내 작품 보고, 가지고 노는 거 보면 좋지.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해서 작품을 만들고 싶어.” /당진시대 제공

“잊혀져 가는 조상들의 지혜 지켜 주세요”

홍성 서부 소도마을 인근서 무형문화재 ‘어살’ 흔적 발견

[홍성]서부면 남당리 소도마을 인근 해안가에서 어살로 추정되는 흔적이 발견됐다. 마을 주민들은 무형문화재인 어살을 보존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어살은 전통어로방식으로, 과거 그 물이 없었던 때 물고기를 잡기 위한 하나의 장치다. 나무를 군데군데 설치해서 한곳으로 유인하게끔 만들어두면 조수 간만의 차가 생길 때 물고기가 한 곳에 모이게 된다. 문화재청은 2019년도 1월 경 어살을 무형문화재 138-1호로 지정했다.

최근 서부면 남당리에도 어살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제보가 이어졌다. 남당항에서 천북면으로 가다 보면 ‘꽃섬’이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꽃섬 인근 해안가에서 발견됐다는 것이다. 소



홍성군 서부면 소도마을 이화자 씨가 꽃섬 주변에 있는 어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도마을 이화자 씨는 “남당리 해안가에 어살이 있다는 이야기는 종종 들긴 했는데, 나도 최근에서야 발견하게 됐다”라며 “과거의 것들이 점점 잊혀져 가는 시대. 어살을 문화재로 지정하여 옛 조상들의 지혜를 간직하고 널리 알려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고 말했다.

어살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15일, 남당리를 찾았다. 이 씨와 동행하여 꽃섬에서부터 약 20분 정도 갯벌을 걸 어갈 때쯤, 어살의 흔적으로 보이는

나무 밑둥이 곳곳에 보였다.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라 보기에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었다. 어느 부분에는 큰 원의 형태를 그려가며 나무가 꽂혀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 씨는 큰 원의 형태를 띤 곳이 물고기를 가두는 장소라고 말했다. 어살의 흔적은 전체적으로 오래된 탓인지 짙은 모습이 남아있었다.

마을 주민들에 의하면, 어살은 옛날부터 구전으로 전해 들어왔지만 흔적은 비교적 최근에 발견됐다고 한다. 발견된 계기에 대해 소도마을 이기덕 씨는 “그 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천수만 지구가 조성되고 뱃길이 열리면서 빨이 흘러 내려가 흔적이 발견된 듯싶다”라며 “이러한 문화재를 그냥 방치해두는 건 너무나도 아쉬운 일이다. 조상들의 지혜를 보존하면서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고 의견을 제기했다.

/홍성신문 제공

“고향 인재들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길”

윤종일 인당장학재단 이사장 모교에 장학금 기탁 훈훈

[청양]충남 청양군 윤종일 인당교육 장학재단 이사장의 고향 인재양성 지원이 올해도 이어지며 지역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

윤 이사장은 지난달 29일 청양을 방문, 정산면 늘봄웨딩홀에서 모교인 목면초등학교에 장학금 4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장지성 목면초교장, 정종원 목면장, 인당교육 장학재단 이사과 임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장지성 교장은 학교현황 보고로 초 등학생 27명, 유치원생 6명 등 총 33명이 재학하고 있음을 알렸다. 또 교육방향으로 ‘꿈 채움 행복나눔 e-멋진 배움터’란 주제 아래 소규모 학교에 맞춘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들의 배움을 위한 창의, 인성, 융합 프로



윤종일 이사장과 목면초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그램을 소개했다. 유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목면초 졸업생으로 한때는 학생 수가 수백명에 이를 정도로 많아 수업받는 교실이 부족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농촌 인구감소와 저출산으로 학생이 급감해 안타깝다”며 “장학금이 지역 인재들이 바르고 훌륭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기대했다. 윤 이사장은 목면 신흥리 출신으로 1970년대 고향에 전기가 공급되도록 시설비 전액을 지원했고 1980년대에는 목면체육회 설립에 1억 원을 쾌척했다. /청양신문 제공

천안함 46용사 추모비를 어루만지며

I윤성희의 만감(萬感)

2010년 3월 26일의 백령도 저녁바다에는 아직 꽃이 피지 않았다. 파도는 잔잔했지만 바닷바람은 여전히 냉기를 품고 있었다. 그날의 평균 기온은 2.6℃였고 박무가 낀 날씨였다. 음력으로는 2월 11일, 반달을 한참 지난 달이 보름을 향해 차오르고 있었다.

키 리졸브-독수리 한미 합동군사 훈련이 한창이었지만 세상은 모두 평온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한민국 해군 초계함인 ‘PCC-712 천안’ (1200

톤급)의 선실 안에서, 불침번 근무를 마친 누군가는 막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었고, 누군가는 결혼식을 두 달 앞둔 연인을 생각하며 달콤한 미소를 흘리고 있었다. 그때 백령도 남서쪽 1.8km 지점을 순찰하던 천안함의 선미에서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일어났다. 배는 두 동강이 났고 탑승했던 승조원 104명은 침몰하는 배와 함께 물속에 가라앉았다.

천천벽력이란 이런 때를 두고 하는 말일 것. 온 나라가 느닷없는 속보에 경악했다. 다행히 침몰하던 승조원

58명은 구조되었지만 나머지 46명은 끝내 조국 땅을 밟지 못했다. 다시 떠올리기에 가슴이 벌렁거리는 ‘천안함 괴적 사건’.

‘보수는 이용하고 진보는 외면한다’는 말이 들리지만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비극을 한순간에 관통하는 조명탄이었다. ‘천안’이라는 작명의 인연으로 천안시는 1990년부터 천안함과 결연을 맺고 우호를 다져오던 터였다. 이 비극을 어떻게 해석하고 추모할지 고민하던 시민들과 천안시에서는 이듬해 천안보훈공원

에 천안함 46용사 추모비와 천안함 모형을 건립했다.

나는 그때 천안시의 요청을 받아 ‘마흔 여섯 이름을 호명하며’라는 제목의 추모시를 토해냈다. “민을 수 없구나, 2010년의 3월을/온몸의 피를 이 경련을 일으키던/그 통곡의 바다를 정녕 잊을 수 없구나/짧디 짧은 추억, 채우지 못한 청춘의 잔/그대들을 지켜주지 못해 죄스러운 조국까지 끌어안고/서해바다 고립무원의 해저에서 몸부림쳤지//그래 잊지 말아야지, 눈물 젖은 가슴에 새겨야지/마흔여섯 슬픈 이름을 하나하나 호명할 때마다/그대들은 끝내 살아남을 바다의 전사, 나라의 아들”



천안함46용사 추모비

/윤성희(문학평론가)



송림숲에 피어난 보랏빛 향연 장항송림산림욕장에 맥문동꽃이 활짝 피었다. 맥문동은 8월 초에 개화해 8월 하순에 만개, 9월 중순에 꽃이 진다. 맥문동이 개화한 지금 시기에 약 5km의 산림욕장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소나무의 피톤치드와 맥문동의 보랏빛 향기, 서해의 선선한 바람과 아름다움을 함께 느낄 수 있어 무더위에 지친 몸을 힐링하기에 최적이다. /서천신문사 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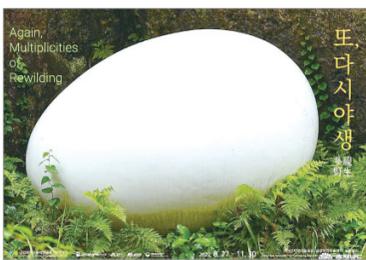
금강미술비엔날레...“이번엔 야생이다”

11월 30일까지 연미산자연미술공원 세계 10개국 출품 26팀 작품 전시

2022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운영위원장 고승현)가 지난달 28일 비엔날레 야외전시 공간인 공주 연미산자연미술 공원에서 개막했다.

올해로 10회 째를 맞는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는 8월 2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열릴 예정인데, 40년 전인 1981년 국내 최초 자연미술 운동을 시작한 '야투' 그룹의 활동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자연미술의 새로운 담론을 생산하며 오늘에 이르렀다.

세계 10개국에서 26작가(23팀)의 작품 23점이 출품된 이번 비엔날레의 주 전시는 야외 자연미술 설치작품과 실내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속행사로 '숲과 생명'을 다루는 영상작품 공



금강자연미술비엔날레 포스터

모전과 생태와 자연미술을 주제로한 학술행사 등을 병행한다.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는 '또, 다시 야생(多視 野生)'으로 '재야생(rewilding)'의 다양한 시각과 개념을 풀어쓴 것이다.

설치작품을 구축하되 물질적인 차원의 형상화를 최소화하는 방식을 고민하면서 동시에 자연이나 생태의 본래적 의미를 회복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다른 한편으론 자연과 생태 담

론의 폭을 넓혀 역사, 사회, 자본 등의 문제와 연관시킴으로 자연에 대한 인식을 확장하고자 하고 있다.

참여 작가들의 작품들은 이러한 취지를 적극 살리고 있는데, 이번에 선보일 작품들은 역시 자연친화적 소재의 구조물이나 설치 작품들이지만 대부분은 물질적 속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자연의 본래적 속성을 탐구하며 드러내는 작업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우주나 태양, 대지의 에너지와 끝없이 변모하는 자연의 본성을 탐구하고 드러내는 작업, 환경과 통합된 유기체의 형상을 통해 자연 속에 내재된 생명의 본질을 인식하게 하는 작업, 자연의 미세한 소리에 관심 가지는 작업, 태고를 소환하는 작업 등이 그것이다.

/금강뉴스 제공

아산 인산서원 가치 재조명

아산학연구소, 학술대회 개최
만전당 흥가신 연구 결과 공유

만전당 흥가신을 중심으로 한 인산서원 배향 인물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인산서원은 1610년 아산지역에 최초로 설립된 서원이라는 의미와 함께 아산지역 관련 인물인 흥가신·기준·이지

함·이택민·박지계 등이 배향돼 있어 역사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특히, 만전당 흥가신은 1596년 임진왜란 당시 이몽학의 난을 진압해 청난공신 일등에 봉해져 후에 정퇴서원과 인산서원 두 개의 서원에 배향됐으며, 왕에 대한 충성심과 민본주의의 신념을 가진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순천향대학교(총장 김승우) 아산학연구소(소장 박동성)가 인산서원복원

추진협의회, 한국서원학회와 공동으로 8월 26일 온양제일호텔에서 개최된 학술대회는 만전당 흥가신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공유하고, 인산서원의 복원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김기승 교수(순천향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을 시작으로 전문가 4명의 주제발표와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김승우 총장은 “이번 학술대회에서 다룬 과거 사립대학 역할의 서원 관련 연구 및 복원 노력이 지역 교육과 전통 부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온양신문 제공

충남교향악단 정기연주회

9월27일 공주문예회관

충청남도 공립예술단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의 제189회 정기연주회가 9월 27일 오후 7시 30분,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브람스 ▲비극적 서곡 작품 81을 시작으로, 놀라운 실력과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와 협연하는 세계 3대 바이올린 협주곡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 64, 그리고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드보르자크 ▲교향곡 제9번 작품 95 '신세계로부터'로 공연 대미를 장식한다.

협연자로 함께하는 바이올리니스트 김다미는 독일 하노버 요아힘 국제 바이올린 콩쿠르 우승, 파가니

니 국제 콩쿠르 1위 없는 2위,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인디애나폴리스 국제콩쿠르 등 수많은 국제 콩쿠르를 석권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다.

공주시충남교향악단은 올해 2월, 제5대 삼மிழ자장 정나라가 지휘봉을 잡으며 국내 대표 공립오케스트라로써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도약하고 있다.

이번 공연의 입장료는 전석 1만 원으로 초등생 이상 입장할 수 있고, 입장권은 공주문예회관 홈페이지와 인터파크에서 예매할 수 있다. 기타 전화 예매나 공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충남교향악단(041-856-0778)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산 서해미술관, 유소정 초대전

9월 3일~18일까지 전시

“꽃은 우리 조상들의 생활 속에서 가까이 다루었고 좋아하는 소재였습니다. 모란꽃은 상서로운 의미와 상징으로 숭상했고 작은 풀꽃들도 즐겨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저에게 있어 꽃은 아름다움의 절정이고 기쁨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 글은 유소정 작가 말이다. 서산시 소재 서해미술관은 9월 3일부터 18일까지 유소정 작가 초대전 '꽃과 나비 그 아름다운 화음'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에서는 나비의 화려한 변신과 놀라움, 자유로운 이미지를 국

내 몇 안 되는 최연소 공중장식화 화원화가인 유 작가의 손끝을 빌어 새롭게 탄생됐다.

유 작가는 “꽃과 나비를 함께 그려 남녀화합과 생명을 잉태시키는 상징으로 나타냈다”며 “이번 전시를 통해 민화의 전통적인 색채와 나비 그리고 꽃을 주제로 창작한 병풍과 채색화를 감상하는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일제강점기로 인해 끊겼던 공중회화의 맥을 재전승하는 것이 목표라는 유 작가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중장식화 숙련기술자 2020-4호로 지정됐다.

/서산시대 제공

조순희 시인 '바람의 이분법' 출간

서천군 곳곳을 시로 소개



종천면 지식리 등 서천의 구석구석을 소개함으로써 살아 있는 삶의 터전이자 아름다운 시적 공간

조순희(사진) 시인은 그의 두 번째 시집인 '바람의 이분법'에서 “하늘이 감동하는 시까지는 멀다 할지라도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시를 쓰고 싶다”(시인의 말)고 고백한다. 세계적인 대재앙인 팬데믹을 경험한 이후, 푸릇한 최초의 기원을 탐색하는 조순희 시의 행보가 더욱 공감이 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부여에서 태어나 서천에서 주로 살아온 조순희 시인은 이번 시집에서 서천의 로컬리티를 본격적으로 보여준다. 서천군 시조면 선암리, 한산면 신성리, 서면 마량리, 문산면 신농리,

으로 서천을 새롭게 구축하는 일을 시 쓰기를 통해 실천하고자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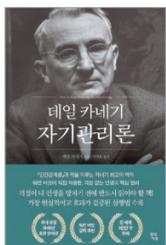
한편, 조순희 시인은 원광대학교 대학원(교육학 석사)과 건양대학교 대학원(행정학 박사)을 졸업했으며, 서해대학교 케어복지과 겸임교수를 역임했다.

서천군의회 의원과 서천문화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어린이집 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서천신문사 제공



사서들의 서재



(자기관리론/데일 카네기/현대지성/2021)

걱정 없는 인생을 위하여

데일 카네기의 대표작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론을 떠올릴 것이다. 인간관계론은 전 세계 6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인간관계를 가르쳐주는 인간관계론에 관한 고전 도서이다.

이 인간관계론과 짝을 이루는 데일 카네기 최고의 역작이 있는데 자기 관리론이라는 책이다. 데일 카네기는 인간관계론에 관해 화술과 인간관계를 가르치는 동안 걱정이 모든 인생 문제의 주원인이자 자기관리의 핵심

요소임을 깨닫게되었다. 걱정을 멈추고 새로운 인생을 사는 법을 교육하기로 마음먹게되고 이 책을 서술하게 되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해지고 그로 인해 불행해지는 이유는 대부분이 걱정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우리를 위해 데일 카네기는 걱정이 내 인생을 망치지 못하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으로 걱정을 이겨내게 해줄 강력한 법칙을 책을 통해서 알려준다.

데일 카네기가 제시한 걱정이 나를 망치지 전에 걱정하는 습관을 없애는 법은 다음과 같다.

1. 늘 바쁘게 살면서 걱정을 몰아내라. 걱정하는 습관을 고치는 최고의 치료법은 부지런히 활동하는 것이다.
2. 하찮은 일에 호들갑을 떨지 말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사소한 일들 때문에 행복을 망치지 말라.
3. 걱정을 몰아내기 위해 평균의 법칙을 활용하라. 스스로 자문해보라.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4. 피할 수 없다면 받아들이라. 내 힘으로 바꿀 수 없는 상황이라면, 스

스로 이렇게 말하라. “이미 그러니 어쩔 수 없다.”

5. 걱정에 손절매 주문을 걸라. 어느 정도까지 걱정할 가치가 있는 일인지 판단하고, 그 이상은 걱정하지 말라.

6.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틈바람을 다시 쫓아내라.

저자는 이 책의 목적을 모두가 알고 있는 인생의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인생의 전환점이 필요하고, 불행과 걱정거리가 몰려와도 흔들림 없는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 사람에게 추천하는 책이다.

/충남도서관 한아름 사서



추석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의장단, 종사자들의 위문품 전달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2022년 추석 명절을 앞둔 1일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시설 종사자와 이용자들이 따뜻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조길연 의장(부여2)과 김복만 제1부의를장(금산2)은 이날 부여군과 금산군 소재 사회복지시설 두 곳을 각각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했다.

홍성현 제2부의를장(천안)은 지난 2일 천안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해 온정의 손길을 내렸다.

최근 코로나19 감염 확산 추세를 감안해 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의 접촉을 최소화하고자 내부 일정을 자제하고, 외부에서 물품을 전달한 후 시설 관계



조길연 의장이 사회복지시설 방문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자와 의견을 나눴다.

조 의장은 “이번 추석 명절은 생활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지만 모

두에게 따뜻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한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정책 연구모임 발족

“지역사회의 적극 참여 기대”

충남도의회가 지역별 다양한 자원을 교육과 연계하여 삶의 터전이 배움터로 이어지는 지속가능한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의회 ‘충남마을교육공동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김명숙)은 지난 29일 기획경제위원회의실에서 발족식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연구모임은 대표인 김명숙 의원(청양)을 비롯해 공무원,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제로 참여하고, 지역별 다양한 방식의 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가 충남의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날 발족식에서 충남연구원 전지훈 연구원은 “교육교육공동체의 구성요인은 학교 공동체(학교), 사회적 배움공동체(지역사회), 교육자치공동체(공적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협력, 연대가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주시청년센터 이다현 센터장은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의 협력 관계는 아직도 요원하며, 마을은 학교를, 학교는 마을을 잘 알지 못한다”면서 “지역에서 분절적 사업 운영이 통합돼 운영돼야 진정한 마을교육공동체가 구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회원들은 “마을교육공

동체사업의 양적 확대는 이뤄졌으나 질적 수준을 보완해야 하며, 마을과 교육간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접점을 찾아내면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도의회에서 논의의 장을 마련해 준 것에 대해 고무직”이라고 밝혔다.

김명숙 의원은 연구모임을 통해서 “학교와 마을 구성원 등 지역사회가 교육의 주제로서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을 담당한다면 인구감소, 지방소멸 등의 실마리를 풀어나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미래를 만들어갈지 함께 고민하면서 출발하게 되었다”고 발족식 소감을 밝혔다.

농업현장 고용 지원 필요

농가 외국인근로자 연구모임

충남도의회 ‘농가 외국인근로자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윤기형)은 1일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2차 회의를 열어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실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외국인근로자 고용제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장기적 시각으로 외국인근로자 고용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발제를 맡은 엄진영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위원은 “정부가 농업부문 내·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농업 현장에서는 미등록 외국인 근로자의 불법취업이 여전히 있고, 코로나19 이후에는 외국인근로자 공급 제한으로 농업임금근로자 부족 문제가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품목과 농작업 특성에 맞는 제도의 세분화 ▲시·군단위 내·외국인 인력 매칭과 센터간 인력교류 ▲농업 고용인력 정책 수립 및 전달체계 마련 ▲계절근로자제도 운영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윤기형(논산1) 의원은 “농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인 건강증진 위한 생활체육 정책 논의

방한일 의원 요청 의정토론회

충남도의회가 고령화 시대, 노인들의 건강한 노후 생활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방한일 의원(예산1)의 요청으로 진행된 이번 의정토론회는 31일 충남도의회 회의실에서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방 의원이 좌장을 김용현 충남연구원 연구위원이 발제를 맡았고, 노태현 충청남도 체육진흥과장, 최석현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김홍식 충청남도체육회 체육진흥

팀장, 김혜옥 충청남도 경로당광역지원센터장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방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충남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42만 6600명 이상으로 초고령화 사회의 기준인 20%를 넘어섰다”면서 “고령화 시대, 양적으로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질적으로 얼마나 건강하게 사느냐가 더욱 중요하기에 오늘 자리를 준비했다”며 활발한 논의를 주재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용현 연구위원은 ‘도내 어르신 체육시설 실태조사 현황’을 바탕으로 어르신 신체 및 건강 조건에 맞는 맞춤형 운동·체육 시설 제공 방안을 제안했다.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사전과약 중요”

기후위험 연구모임 2차 회의

충남도의회 ‘기후 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실질화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대표 김선태)은 26일 2차 회의를 열고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연구모임 회원들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사후 지원이 아니라, 예방적 차원의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특히 충남만의 특색있는 정책을 개발해야 하며, 이를 위해선 시·군의 일선 현장에서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선태 의원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이상기후가 취약계층의 삶에 미치는 어려움을 파악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어려운 이웃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폭염 등 기후위기에 따른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이번 연구모임은 열악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진행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 방안 모색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 발족

충남도의회가 수요자 맞춤형 유아교육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활동에 돌입했다.

‘아이 행복 더하기 연구모임’(대표 홍성현)은 25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도의원과 관계기관 및 학계 전문가 등과 함께 충남형 유아교육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연구모임을 발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연구모임은 충남의 유치원 교육 실태와 현황을 분석하고, 회원간 정보교류 및 전문가 연계를 통해 유아교육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결성됐다.

홍성현 의원(천안1)이 연구모임 대표를, 충남교육청 교육과정과 임현경 장학사가 간사를 맡았고, 구형서 의원(천안4), 박정식 의원(아산3), 신한철 의원(천안2), 안종혁 의원(천안3), 지민규 의원(아산6) 등 5명의 도의원 등 모두 17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첫 회의에서 유치원 방과 후과정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학부모 요구사항 분석 등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홍성현 의원은 이 연구모임을 통해 충남 유아교육의 내실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행복한 충남형 유아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를 받습니다.

· 충청남도의회에서는 2022년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과 그 소속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 도민여러분의 제보를 통해 내실 있고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제보기간 : 2022. 9. 1. ~ 10. 31.

※ 2022. 11. 1 이후 접수건 :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반영

▶ 제보내용 충남도정 및 교육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항, 업무 개선이 필요한 사항, 도비 보조금의 부당수령, 주요 낭비사례 및 도민생활에 불편을 주는사항 등

▶ 제보방법

▶ 인터넷 충청남도의회 홈페이지 (council.chungnam.go.kr) → 참여마당 → 행정사무감사 도민제보

▶ 우편 (방문) (우 32416) 충청남도 예산군 삽교읍 도청대로 600 충청남도의회 의사담당관실

▶ 문의전화/ FAX 041-635-5083/ 041-635-5283



상임위원들에게 듣는다 - 위원장 인터뷰

“도민 생명과 안전 최우선 하겠다”



⑤안전건설소방위원회

김기서 위원장

현장 중심 의정활동 주력

안전건설소방위원장 선출 소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여기며,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 없도록 살피 가겠다.”

앞으로 2년간 활동 방향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기본으로 삼아 나아갈 생각이다. 사전 사업설명회 등에서 주민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 행정을 강화해 꼭 필요한 사업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그동안의 건설토목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히 개선하고 효율적 소방 업무와 해당 공직자 근무 여건 개선에도 힘써가겠다.”

꼭 이뤄보고 싶은 것은

=“도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꿈비채’ 사업을 본 궤도에 올리는 것이다. ‘더 저렴한 주거비, 더 편한 주거환경, 더 안심 육아 환경’을 목표로 하는 만큼 수요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한 발짝 더 도약하게 함으로써 대한민국 선도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다.”

지역 현안 사업과 해결방안은

=“지역구인 부여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역사문화관광의 도시이다. 따라서 부여군과 함께 백마강 국가정원 추진을 위한 자연정원 조성에 매진해 도시 전체를 정원으로 가꾸는 것이 제1의 과제다. 궁극적으로는 지방정원을 조성해 향후 국가정원을 이루는 것이므로, 끈기를 갖고 장기적 로드맵을 그려 나가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금강 수질 개선을 위한 금강하굿둑 해수유통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갈 것이다.”

도정 주요 현안 사업과 문제점, 해결방안은

=“충남도 균형발전을 위한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도 지역 균형발

전 사업이 도민 삶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도내 시군 중 10개 시군이 소멸위기지역에 해당한다. 무엇이 주민 삶에 효과적인지 자세히 따져보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위기지역에 대응 기금을 적기에 투입하는 등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 한다.”

앞으로의 각오 및 도민에게 한마디

=“제도과 시스템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대안과 정책 마련으로 의회와 집행부 간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 국회, 정부, 집행부의 자료를 분석·공유해 지역에 적용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다. 충남도는 타 광역시도에 비해 수도권에 근접해 있어 얼마든지 기회가 열려있다.”



국제소방안전박람회 참관

“소방장비·근무여건 개선 노력”

충남도의회 안전건설소방위원회(위원장 김기서)는 지난 1일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된 제18회 국제소방안전박람회를 찾아 최첨단 소방 장비와 기술을 관람했다.

‘소방발전 40시대, 도약하는 소방산업’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새롭게 변화하는 재난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최첨단 소방장비와 기술 트렌드를 한눈에 볼 수 있었으며, 특히 이번 행사는 사상 최대 규모인 27개국 357개사 1223부스 규모로 열렸다.

김기서 위원장(부여1)과 조철기 의원(아산4)은 이번 행사에 처음 선보인 로봇·드론 특별전시관을 찾아 협소한 공간에서 생존자를 탐색하는 뱀형 협소 로봇과 화재현장에 투입되는 수색용 4족 보행로봇, 웨어러블 로봇, 스카이다이 로봇 등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설명을 들었다.

또한 소방청 및 충남소방본부 관계자들과 함께 참관하며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최첨단 개인 소방장비 확충을 강조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소방분야 근무 여건 개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제소방안전박람회는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를 계기로 소방안전에 대한 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선진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2004년부터 시작된 국내 유일 소방안전 전문 박람회다.

‘의정모니터’ 역할 확대

워크숍 열고 우수사례 공유

충남도의회(의장 조길연)는 현장의 도민 목소리를 듣고, 도민의 삶과 의정활동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30일 제2차 의정모니터 워크숍을 개최했다.

제12대 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워크숍에는 조길연 의장과 김찬배 사무처장, 의정모니터 30여 명이 참여했다.

워크숍은 의정모니터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청운대 김봉덕 교수의 ‘미디어 활용과 홍보전략’ 특강과 의정모니터 제안 우수사례 발표 및 자유 발언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처음으로 의정모니터간 정보 공유와 협력 강화를 위한 모니터 2명의 제안사례 발표가 이뤄져 눈길을 끌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의정모니터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모니터와의 소통 기회를 넓힘으로써 ‘도민 중심 행동하는 의회’ 비전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

조길연 의장은 “의정모니터는 도민과 도의회의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모니터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도민 삶에 가까이 갈 수 있는 도의회 구현에 필수적”이라며 활발한 활동을 당부했다.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 목표”



⑥교육위원회 - 편삼범 위원장

민생위기 극복 위한 대안 마련

교육위원장 선출 소감은
=“코로나19 재확산과 치솟는 물가, 불별더위, 폭우 등 여러 악재로 어려운 시기에 충남교육의 중책이라 할 수 있는 교육위원장에 선출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충남발전과 미래 역량을 갖춘 4차산업의 육성은 교육의

힘이라는 마음으로 동료 선후배 의원들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을 이루는데 앞장서 가겠다.”

앞으로 2년간 활동 방향은

=“도교육청과 견제·균형을 이뤄가면서 학생·학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하고 안전한 충남교육과 대한민국의 으뜸 인재를 육성해가겠다. 또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 혁신, 노후 교육환경 개선 등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할수록 교육격차가 커지고 있고,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기초학력 부진학생과 교육 취약계층의 학습결손 최소화 위해 더욱 세밀한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꼭 이뤄보고 싶은 것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양극화 해소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한편 권역 간 불균형 성장을 해결해 가고 싶다. 지역 불균형이 기업 유치에도 나타나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도민 모두가 동등한 권리를 누리고, 사회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존중을 바탕으로 생활할 수 있는 ‘힘센 충남, 존경받는 충남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꼭 필요한 지역 현안 사업과 해결방안은

=“첫째, 어린이 치유 숲 공원 조성사업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시기에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가 함께 숲속에서 휴식하며 육체적·정신적으로 자연을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 둘째, 보령

시 전선지중화 사업이다. 일부 지역에 초고전압이 흐르는 전선주와 전선이 지상 노출 방식으로 건설돼 있다. 태풍·화재·번개·낙뢰 등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고전압으로 인한 폭발 위험과 인명피해 우려가 매우 크다. 안전사고 예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지중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앞으로의 각오

=“도민의 입장, 학생의 관점에서 민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담아듣고 잘 살피 이를 도정에 반영하는 등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 충남발전과 충남교육의 미래를 위해 지역 현안 사업과 민원 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발전을 위해 도민과 함께 소통하겠다.”

“선진의회 발전 교두보 만들어 갈 터”



⑦의회운영위원회

방한일 위원장

복리증진 위한 조정자 역할 강조

의회운영위원장 선출 소감은
=“지난 4년간 사심 없이 일 중심으로 도의원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많은 사랑과 지지를 줬다고 생각한다. 정치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현장에 돌아보며 도민을 찾아가 함께 이야

기를 나눴다. 앞으로도 현장에 직접 나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치에 연결할 것이다.”

앞으로 2년간 활동 방향은

=“도의회와 집행부 간 원활한 소통과 상생 방안을 제시해 가는 데 우선하겠다. 둘째로 의원 전문성과 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겠다. 기초역량을 강화해 가는 것이야말로 급변해가는 시대 흐름 속에서 의정활동에 큰 보탬 될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은 도의회 위상 제고에 한몫할 것이다. 셋째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안 심의 등 날카로운 감사 활동에 역점을 두겠다.”

지역 현안 사업과 해결방안은

=“수도권 공공기관 유치 등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 현재 공공기관 유치에 미흡한 점이 많다.

이에 힘을 보탬 것이며, 내포신도시 면적 확대에 예산·홍성 간 면적 불균형을 개선해 가겠다. 또 내포종합병원 설립과 국립대학 의과대학 유치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이다. 특히 예산군이 내포신도시로 흡수되면서 상가 공실률이 늘어나는 등 상권 공동화가 심각하다. 이에 예산군과 내포신도시가 상생·발전해 가는 방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현재 예산군은 위기인 한편 큰 기회의 시기다. 우량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증가시책,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동반 성장 등 예산발전의 기초를 다지는 데 노력하겠다. 또 계획대로 2025년에 순조롭게 삼교역이 설치되어 내포신도시가 10만 자족도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 가겠다.”

앞으로의 각오

=“운영위원장으로서 충남도의회 의원

들이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점이 무엇인지 항상 귀 기울이고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도민중심 행동하는 의회’라는 의정 비전에 맞게 내실 있는 운영위를 이끌어 가면서 소통의정, 선진의정, 책임의정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특히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도민과의 약속을 위해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공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끝으로 도민에게 한마디

=“의회운영위원장의 임무와 도의원의 역할을 잘 병행 해나가겠다. 지난 4년간 활동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4년도 변함없는 모습을 약속한다. 낯은일, 힘든 일 마다하지 않고 가장 먼저 앞장서서 달려갈 것이며,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가겠다. 항상 도민을 섬기며 봉사하는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활동하겠다.”

K-Military, 평화의 카모니



2022
계룡세계軍문화
EXPO

2022.10.7(금) ~ 10.23(일)
충청남도 계룡시(계룡대 활주로)

- 메인 공연 | 계룡세계군악의장 콘서트, 로드퍼레이드, 뮤지컬 갈라쇼
- 프로그램 | 블랙이글스 축하비행, 전투 및 기동시범, 고공강하시범, 육해공군의 날, K-MILITARY 경연대회, 계룡산 안보등반, 계룡대 영내투어
- 체험 | 군무기장비 전시·탑승, 헬기탑승 투어, 병영훈련·서바이벌·사격훈련 체험
- 국제회의 | 계룡세계평화포럼
- 전시관 | 세계평화관, 한반도희망관, 대한민국국방관, 세계군문화생활관, 국방체험관, 4차산업융합관, 지역산업관

